

석사학위논문

H. D. 소로우의 에세이

- 원칙없는 삶 외 -

H. D. Thoreau's Essay
-"Life without Principle" and Three Others-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강연숙

2004년 2월

H. D. 소로우의 에세이

- 원칙없는 삶 외 -

지도교수 박 경 란

강 연 숙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강연숙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4년 2월

H. D. Thoreau's Essay
-"Life without Principle" and Three Others-

Youn-sook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04

목 차

ABSTRACT	1
I. [원칙 없는 삶]	3
II. [사랑]	36
III. [순결과 관능]	42
IV. [가을의 색조]	47
1. 가을의 색조	47
2. 자줏빛 풀들	50
3. 빨간 단풍나무	57
4. 느릅나무	62
5. 낙엽	64
6. 사탕단풍나무	70
7. 주홍 참나무	77
V. 참고문헌	88



ABSTRACT

H. D. Thoreau's Essay -"Life without Principle" and Three Others-

In "Life without Principle", to Thoreau vocation meant not making a living but making a life. Thoreau pointed out that there are few men so well employed, so much to their minds, but that a little money or fame would commonly buy them off from their present pursuit. "Life without Principle" is largely a negative, Persius-like attack on business, a protest that getting a living should not be considered an end in itself, but only a means to the real business of living. Here "Principle" means "pure transcendental spirit" and "truth and reality" as a hard foundation of life. Thoreau was well aware of how difficult it would be for him to penetrate through the distortions and superficialities, down to the basic truth by which he might give meaning to the life he lived. In "Life without Principle", Thoreau strongly insisted that getting a living be not only honest and honorable, but also inviting and glorious; for if getting a living is not so, then living is not.

In "Love", Thoreau hinted at his transcendental philosophy. All transcendental goodness is one, though appreciated in different ways, or by different senses. The lover sees in the glance of his beloved the same beauty that in the sunset paints the western skies. The object of love expands and grows before us to eternity, until it includes all that is lovely, and we become all that can love. In "Chastity & Sensuality", Thoreau wrote that if it is the result of a pure love, there can be nothing sensual in marriage. And a pure love is indeed the panacea for all the ills

of the world.

"Autumnal Tints" is an essay on Beauty, on the art of perception. It is concerned with telling us not only what to look at but how to look. Thoreau's original plan, he says, was to collect a specimen leaf from every tree, "outline it, copy its color exactly, with paint, in a book, which should be entitled 'October, or Autumnal Tints.'" As for the beauty of autumn colors, it is rendered by a shower of images rather than by bald statement. Unlike most of his townsmen, with their ingrained hostility to beauty, "he has dreamed of it, so that he can anticipate it."



「원칙 없는 삶」¹⁾

얼마 전 강연회에 참석했는데, 연사가 자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주제를 택해서 강연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자신과 관련된 주제를 택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해서 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말았다. 이 연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강연하지 않고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을 다루어서 그의 강연에는 초점이 없었다. 시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경험을 강연에서 다루도록 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나는 가장 찬사를 받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놀라움과 기쁨에 넘치게 된다. 이는 마치 그가 사적인 경험이나 생각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런 방법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는 아주 드물게 나를 잘 활용하려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흔히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측량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이커의 땅을 측량했는지와 기껏해야 어떤 사소한 소식들때문에 괴로워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알맹이를 알기 위

1) 「원칙 없는 삶」은 1863년 10월 [애틀랜틱 먼슬리]에 작가 사후 17개월 뒤에 최초로 출판되었으며, 소로우 생전에 대략 6년 동안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빈번히 강연을 했다. 1854년 12월 26일에 [생계를 유지하기] ("Getting a Living")라는 제목으로, 12월 28일에도 난터켓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 1855년 1월 4일에 우스터에서는 [사람의 직업과 더 고귀한 삶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1855년 2월 14일에 콩코드에서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로, 1859년 10월 9일에 [잘못 보낸 인생]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그는 비슷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괜찮은 제목을 정하려고 노력했으며 최후에 제목을 「원칙 없는 삶」으로 정했다.

해, 원칙을 알려고는 전혀 하지 않고 껍데기만을 아는 것을 좋아한다. 한번은 노예제도에 관한 강연을 나에게 부탁하기 위해 상당히 멀리서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 왔다. 그와 대화하면서 그와 그의 동료는 내가 하게 될 강연의 팔분의 칠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하고 단지 팔분의 일만 내 자신의 생각을 강의하라고 요구해서 나는 강연을 안 하겠다고 했다. 나는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강의하러 초대받았을 때, 비록 내 자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바보일지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청중은 듣고 싶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지녀왔다. 사람들은 단지 즐거운 것들 또는 청중이 동의할 그러한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의 많은 부분을 강연할 때 펼치기로 작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강연을 부탁하기 위해 나를 부르러 왔고 나에게 돈을 지불했으며 그리고 비록 내가 청중을 선례 없이 따분하게 한다하더라도,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펼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의 독자들인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어떤 것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나의 독자들이고 나는 여행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집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아침하는 말은 삼갈 것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세계는 비즈니스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끝없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기관차가 칙칙거리는 소리에 거의 매일 밤 잠을 깬다. 이 소리는 나의 꿈을 휘방놓는다. 안식일이 없다. 한번이라도 인류가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다면 영광스런 일이 될 것이다. 일, 일, 일밖에 없다. 나의 생각을 적어 넣을 백지 장을 쉽게 살수가 없다. 생각은 달리와 센트로 흔히 평가된다. 한 아일랜드 사람이 내가 들판에서 메모하는 것을 보고서는 내가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창문에서 밖으로 던져져서 불구가 되거나, 인디언을 보고 놀라서 제정신을 잃었다면, 그가 이렇게 돼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아쉬워한다. 끊임없이 행해지는 비즈니스보다 시, 철학, 아! 인생 그 자체에 더 역행하는 것은 없으며 이 끊임없는 비즈니스보다 더한 범죄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마을 교외에 야비하고 활기에 넘친 축재가가 있는데, 그는 자신이 소유한 초지 가장자리를 따라 언덕 밑에 뚝담을 지으려고 한다. 돈이 있음으로 해서 그는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는 나보고 그와 함께 거기서 땅을 3주 동안 같이 파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 결과 그는 약간 더 많은 돈을 비축하게 될 것이고, 돈을 상속인이 어리석게 쓰도록 남겨둘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와 함께 이 일을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칭찬할 것이다. 하지만 돈은 비록 적지만 진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자신이 헌신할 것을 선택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노동수단으로 인해서 내가 통제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 사람이 하는 일에서 우리 자신이나 외국정부에서 많이들 하는 사업에서처럼 조금이라도 더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이 그나 그들에게 흥미롭다 해도 나는 다른 학교에서 나의 교육을 끝내고 싶다.

숲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반나절동안 숲을 산책하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할 일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투기적인 사업가로서 자연이 제명을 다 하지 못하게, 숲의 나무를 자르고 땅을 깎아 내리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그 사람은 부지런하고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마을에서는 숲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나무를 자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임금을 줄 테니 돌을 벽에 던지고 되던지는 일만 하라고 제의한다면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고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예를 나는 어느 여름 아침 해뜨기 바로 전에 목격한 일이 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한 분²⁾이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팀은 굴대 밑에 매달린 잘린 무거운 돌을 천천히 끌고 있는 중이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였다. 이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으며 게으른 사람들에게 책망도 했다. 소들의 어깨를 열 종대로 해서 쉬게 하면서 회초리로 한차례 등글게 반쯤 돌리니 소들은

2) 헤이든(Hayden)으로 확인됨

그 사람으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게 가능했다. 미국 의회는 이런 일을 보호하려고 존재하는가! 옳고 인간다운 노동, 하루가 긴 것만큼 정직하게 하는 노동, 그가 먹는 빵이 달콤하고 사회를 향기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신성시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성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필요는 하지만 따분하고 단조로운 기계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난 정말로 모멸을 느꼈다. 창문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외출할 생각도 없었고 비슷한 일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낮 시간이 지나갔고 저녁때 다른 이웃 사람들의 정원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집 주인은 여러 하녀를 두고 있었고 보통 주식에 보태는 것은 하나도 없이 많은 돈을 어리석게 쓰는 사람이었다. 티모시 텍스터(Timothy Dexter) 경³⁾ 건물을 장식하려고 묘하게 생긴 구조물 옆에 놓여 있는 오전 나절에 보았던 돌을 여기서 다시 보았다. 이 집 마차꾼이 하는 일을 보고서 그나마 남아 있던 존엄성마저 순간 사라졌다. 태양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비추기 위해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 덧붙여 말하자면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마을의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도망쳤으며 찬서리⁴⁾(Chancery)를 거쳐 간 후에 어딘가에 정착해서 다시 한번 예술 후원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3) 티모시 텍스터(1747-1806): 정원에 유명인사들 실물크기의 나무로 된 조각상을 장식하는 등의 그의 기괴한 행위 때문에, 매사추세츠 뉴베리포트 이웃들은 그에게 “경”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4) 파산을 제소하는 형평법 법정.

것은 참말로 게으르거나 또는 더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만을 얻는다면 노동자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당신이 작가나 강사로 돈을 벌려면 유명해져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유명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당신을 수직으로 밑으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가장 기꺼이 일에 대해 지불하는 서비스는 주기에 가장 싫은 것이다. 당신은 인간 이하의 어떤 것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흔히 말해서 미국은 천재에게 현명한 방식으로 조금도 보답하려고 하지 않는다. 계관시인조차도 왕족의 사건을 경축하는 노래를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 시인은 포도주 한 통⁵⁾으로 매수되었음이 틀림없다. 또 다른 시인은 바로 그 술통을 채다가 시신이 사라졌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보고 측량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도 내가 가장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량을 원치 않는다. 이 사람들은 내가 측량을 대충했으면 한다. 내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측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면, 나를 고용한 사람은 가장 정확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많은 땅이 할당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한다. 한때 나는 4피트 길이로 잘라서 파는 장작을 파는 방식을 알아내서 보스턴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측량사나에게 이르기를 장작을 파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목재가 정확히 측정되기를 원치 않으며, 이미 나무를 정확히 측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인들은 목재가 다리를 건너가기 전 찰스타운에서 측정되기를 원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이나 직업을 가지는 목적이 생계를 꾸려

5) 126 갤런이나 되는 큰 통 - 전통적으로 영국계관시인들의 임금.

나가거나 “좋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잘 수행해나가기 위한 것이 되어 한다. 금전적으로도 사회에서는 노동자에게 잘 지불해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도 저속한 목적과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심지어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의 일을 하려는 사람을 고용하지 말라. 대신에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사람을 고용하라.

놀라운 것은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돈 조금 받고 명성을 얻음으로서 추구하려는 것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어 버린다. 이러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젊은이의 전 재산인 것처럼 묘사한 활동적인 젊은이를 위한 광고를 보았다. 어떤 한 젊은이는 성인인 나에게 자신 있게 그가 벌이는 사업을 같이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이 말을 듣고 마치 지금까지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의 삶이고 내가 완전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인사말인가? 이는 그가 마치 대양에서 바람에 맞서 싸우며 갈 곳을 모른 채, 바다를 향해하는 도중에 그와 함께 가자고 나에게 제안하는 것처럼 들렸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해상보험업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가?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이 순간에 내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내 고향 항구에서 어슬렁거리는 소년이었을 때, 강건한 선원을 구하는 광고를 보았으며, 내가 성년이 되자마자 나는 나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사회는 현명한 사람을 유혹할 뇌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은 산에 터널을 뚫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수는 있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고용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수는 없다. 사회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돈을 지불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실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자라는 실력과 비효율성을 최고 보수제안자에게 제공하고 영원히 사무실에 앉아있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거의 실망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유스러움에 관한 한 나 자신도 나를 부러워할 정도다. 나는 아주 미약하게 일시적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회에 대한 의무가 아주 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내 생계와 관련된 일이 사회와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나는 어느 정도로 나와 더불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봉사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와 미약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 까지도 나에게 즐거운 요소로서 늘 상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약하게나마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훨씬 많아진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동한다는 것이 나에게 고된 노역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의 하루 중 오전 오후 전부를 사회에 팔아 버린다면, 확신하건데 나에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스포한 그릇을 위해⁶⁾ 나의 생득권을 결코 팔지는 않을 것이다. 어

편 사람이 매우 부지런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자신의 삶 대부분을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소모해버리는 사람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모든 위대하고 진취적인 정신은 자급자족 자활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시인은 자신이 쓴 시로 자신의 몸을 유지시켜 나가야만 한다. 이는 증기 평삭기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톱밥으로 엔진을 돌리는 것과 같다. 진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시켜 나가야만 한다. 백중에 아흔 일곱 번 실패하는 상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삶은 이 기준에 의해 시도되었을 때, 실패의 삶이 되고 파산은 확실히 예견되는 것이다.

재산 상속인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탄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산아가 되어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다. 친구의 도움 또는 정부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당신이 이런 관계를 몇진 유사어로 묘사한다 하더라도 구빈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일요일마다 가련한 채무자는 부채를 고려하며 예배보러 가서는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카톨릭교에서는 신도들은 찬서리(Chancery)에 가서 깨끗이 고백하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한 후 인간의 타락에 대해 얘기하면서 천정을 보며 누워서 일어서려는 노력을 결코 하지 않는다.

인생에 거는 희망에 있어서, 다음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한결같이 성공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 사람이

6) 창세기25:33-34. 죽 또는 된 스투

목표로 하는 바는 직선 사격에 의해 맞춰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는 아무리 자신의 삶이 낮은 위치에 있고 성공적이지 않을지라도 수평선에 약간 치켜 올린 범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겨누는 목표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나는 후자와 같은 사람이 돼야만 한다. 동양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래를 영원히 바라다보는 이에게는 위대함이 찾아오지 않고 높이 쳐다보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⁷⁾”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제로 쓴 기억할 만한 작품이 거의 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즉 정직하고 명예롭게 뿐만 아니라 기분 좋고 영광스럽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방법 등을 쓴 책을 말한다.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명예롭고 영광스럽지 않다면 삶도 그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문학작품에서 보듯이 이런 생계문제가 고독한 개인의 명상을 결코 휘저어 놓지는 않았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생계에 대해 말하자니 자신들이 한 경험에 대해 너무 언더리가 나버린 것은 아닐까? 조물주가 교훈적이면서 우리를 깨우쳐 가르치기 위해 대단히 많은 수고를 했던 돈이 가르쳐주는 가치 있는 교훈을 우리는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생계수단에 대해서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가 놀랄 일이다. 개혁가들조차도 자신들이 생계수단을 물려받든지, 벌든지, 훔치든지 간에 생계수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점에 관해서 사회에서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소한 사회가 행해 오던 것을 방치해버렸다. 인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방식보다는 추위와 배고픔

7) 인용본 원전은 밝혀져 있지 않음.

이 나에게 더 친숙하게 맞는 것 같다. 아울러 추위와 배고픔은 나보고 이런 방식을 피하라고 충고한다.

“현명한”이란 말은 대부분 잘못 사용되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른 이보다 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단지 그 사람이 더 교활하고 예민한 지성의 소유자라면 어떻게 그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지혜”는 다람쥐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에서도 일어나는가? 아니면 지혜는 자신을 예로 들면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느냐? 인간 삶에 들어맞지 않은 그런 지혜도 있느냐? 지혜는 단지 가장 세밀한 논리를 가는 제분업자냐? 플라톤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또는 더 성공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플라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삶의 난관에 굴복했느냐? 플라톤은 그저 무관하게 난관들을 극복한 것 같으냐 또는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극복했느냐? 아니면 그의 숙모가 유언장 속에 플라톤의 이름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더 쉽다는 것을 안 것 같으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또는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히 임시변통이고 인생에서 진짜 일을 피하며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 주요한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더 나은 일을 하려는 뜻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로 금을 찾아 떼지어 가는 모양새⁸⁾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인의 아니라 철학자와 선각자들의 태도는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치욕을 반영해준다. 대다수가 요행을 바라며 살려고 한다는 것과 사회에 가치 있는 공헌을 조금도

8) 1849년 골드러시(새 금광지로의 쇄도)

하지 않으면서 행운이 덜한 다른 이의 노동을 지배하는 수단을
 요행으로 얻는다. 이러한 것을 진취적인 정신이라 부르다니! 나
 는 장사하는 것이 불멸의 정신이 깃든 것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
 루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궁이 가지 않으며,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흔한 방식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철학이니 시니 종교는 말볼버섯의 티끌만큼도 가치가 없다.
 주둥이로 땅을 파고 흙을 뒤엎으면서 먹을 것을 찾는 돼지조차
 이러한 일단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창피하게 여길 것
 이다. 비록 내가 한 손가락을 들어올려서 모든 세상의 부를 좌
 지우지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부를 위하여 손가락을 드는 행위
 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마호맷 조차도 신은 이 세상을 장난
 삼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인류가 일 폐니를 줌을 위
 해 앞다투는 것을 보기 위해 한 움큼의 폐니를 흘뿌리는 돈 많
 은 신사로 신을 전락시키고 있다. 세상은 복권 뽑기 장소가 되
 어 버렸다. 자연영역인 생계유지가 제비가 뽀뽀해서 되는 것이 되
 어 버렸다. 우리제도에 대해 무슨 논평과 풍자가 있겠는가? 결
 론은 인간이 나무에 목메달아 자살하는 것이다. 성서에 있는 모
 든 교훈은 인간에게 이것만을 가르쳤던가? 인류의 최후의 가장
 존경할 만한 발명이 단지 나아진 추문 캐기인가? 이것이 동서양
 이 만나는 곳인가? 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씨뿌리지 않은 것을
 캐내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가르쳤던가? 아마 이렇게 가르쳤다
 면 보답으로 많은 금을 우리에게 주었을 것이다.

신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음식과 의복을 부여하는 증명서를
 주었다. 하지만 부정한 사람은 신의 금고에서 꼭 같은 복사본
 을 찾아서 그것을 훔쳐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음식과 의복

을 획득한다. 이는 세상에서 보아온 가장 광범위한 속이는 시스템중의 하나이다. 인류가 금이 모자라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나도 약간의 금을 본적이 있다. 금을 늘릴 수는 있지만 기지(wit)만큼 잘 늘릴 수는 없다. 한 조각의 금이 큰 표면을 도금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금의 지혜만큼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산 계곡에서 금을 캐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술집에서 노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박꾼이다. 당신이 먼지를 흔들어 움직이는 거나 주사위를 흔들어 움직이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당신이 이기면 사회는 패배자가 된다. 어떤 회계전표와 수당이 있든지 간에 금을 캐는 사람은 정직한 노동자의 적이다. 금을 캐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내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악마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범칙자들의 방식은 여러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광산에 가본 가장 겸손한 관찰자는 금 캐는 일이 복권과 같은 성질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얻어진 금은 정직한 노동에서 얻어진 임금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는 자신이 보았던 것을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그는 원칙이 아니라 사실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거래를 하고 보통은 또 다른 복권을 증명하는 표를 산다. 여기서 사실은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저녁 호위트(Howitt)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금 캐는 것⁹⁾에 관해 언급한 것을 읽은 후에 밤새 내 마음속에 많은 계곡이 아른거렸다. 개울이 있고 10에서 100피트 깊이로 더러운 웅덩이를 만들며 파헤쳐진 가로로 9피트 넓이로 팔 수 있는 한

9) 윌리엄 호위트(William Howitt, 1792-1879) 『토지, 노동과 금 또는 빅토리아에서의 2년』 (1855)

넓게 파헤쳐져 부분적으로 물로 채워진 곳, 부를 쫓아 격렬하게 돌진하는 장소, 어디서부터 파야할지, 확신이 없이, 금이 자신들이 캠프를 친 곳 바로 밑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때때로 금광맥을 발견하기까지 160피트까지 파면서 또는 한보차이로 금광맥을 놓치고 부에 대한 열망으로 서로간의 권리에 관계없이 악마의 화신으로 변하면서 30마일이나 되는 전 계곡이 광부들이 판 도랑으로 갑자기 벌집모양처럼 형성되고 수백 명이 이도랑에 빠진다. 물 속에 서서 진흙과 찰흙으로 뒤범벅이 돼서 노출과 병으로 죽어가면서 밤낮으로 일한다. 이것을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불현듯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는 나 자신의 불만족스런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여전히 내 앞에 놓여진 채 내가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금캐기의 비전과 더불어, 스스로에게 아무리 먼지처럼 미세한 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금에 대한 비전을 과연 씻어 내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금에 대한 비전을 수갱 밑으로 가라앉게 하지 않는 이유와 금광에서 일할지도 모르는 이유를 되물었다. 발라라트(Ballarat)가 있고 당신을 위한 벤디고¹⁰⁾(Bendigo)가 있다. 설키 걸리¹¹⁾(Sulky Gully)이면 어떠냐? 어쨌든 나는 내 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비좁고 꾸불꾸불하더라도 그 길에서 나는 사랑과 존경심을 품고 걸어나갈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로부터 떨어져 홀로 그 자신의 길을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하지만 보통의 여행객들은 경계표시

10)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탐광센터.

11) 약간의 금을 캐낸 금광. 소로우는 설키 걸리란 지명과 다른 두 개의 이름을 윌리엄 호위트의 『토지, 노동과 금, 또는 빅토리아에서의 2년(2권)』(*Land, Labor and Gold, or Two Years in Victoria*)(Boston: Ticknor and Fields, 1855)에서 따왔다.

말뚝에 있는 갈라진 틈만을 볼는지 모르지만, 길을 가다 갈림길이 확실히 있다. 하지만 운명을 엇갈리게 하는 그의 외로운 길은 두 길 중에 더 고귀한 길로 판명될 것이다.

마치 진짜 금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로 떼지어 몰려가고 있다. 하지만 그곳은 금이 놓여있는 곳에서 바로 정반대의 끝으로 가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진짜 길에서 떨어져 더 멀리 멀리 금을 찾기를 기대하며 가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불운하게 된다. 우리 고향인 미국은 금이 나는 곳이 아니냐? 황금 산에서 흐르는 냇물은 우리 본토 계곡을 거쳐 흘러가지 않느냐? 지질연대이상동안 이것은 반짝이는 금 조각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금 덩어리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느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금을 채취하는 사람이 진짜 금을 찾기를 기대하며 미개척의 황야로 몰래 가버린다면, 누군가 그의 뒤를 쫓아서 그의 금을 탈취하려고 노력할 위험을 없을 것이다. 그는 토지를 점유해서 개간된 지역과 개간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해서 계곡전체를 파내려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평화롭게 지속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의 땅 점유에 대해 논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요람이나 금을 잇는 콘테나에 대해 게이치 않을 것이다. 발라라트에서처럼 12피트 땅의 한 구획을 점유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곳이나 파내려 가서 그의 금을 잇는 콘테나 속에서 전체 넓은 세계를 씻어 낼지도 모른다.

호위트는 오스트레일리아 벤디고 금광 노동자의 캠프에서 28파운드나 나가는 커다란 금 덩어리를 찾아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윽고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말을 타서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큰소리로 불렀다. 그 다음 친절히 그들에게 자신은 금 덩어리를 발견한 아주 비참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윽고 그는 나무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서 거의 의식을 잃었다¹²⁾.” 하지만 그가 나무에 부닥쳐 의식을 잃을 위험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금 덩어리를 보고서 이미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호위트가 말하듯이 “그는 절망적으로 파멸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그들은 모두 자극을 쫓는 방탕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금을 찾아 파넨 장소 이름을 들여다보라. “멍청이 소택지(Jackass Flat)” 양머리 계곡(Sheep’s-Head Gully)” 살인자의 술집¹³⁾(Murderer’s Bar)” 등등. 이 이름에 풍자할 것이 없느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 곳에서 부정으로 얻은 부를 지니도록 허락해 두라. 내 생각에는 그들이 살 곳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살인자의 술집은 아니지만 멍청이 소택지가 될 것이다.

우리에너지의 마지막 자원은 다리엔¹⁴⁾(Darrien)의 지협에 있는 무덤을 강탈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단지 초기 단계인 것처럼 보이는 사업이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채광에 대해 규정을 하는 법이 뉴그라나다¹⁵⁾에서 두 번째 독화를 거쳤다. 트리뷴(*Tribune*)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건조기 날씨가 허락해

12) 호위트가 쓴 책에서 따왔다.“*Land, Labor and Gold, or Two Years in Victoria*” I권 21쪽에서.

13) 호위트는 Murderer’s Flat(2권 40페이지)이라고 썼는데, 소로우는 약간 달리 썼다. Jackass Flat 때문에 소로우는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바꿨는지도 모르겠다.

14) 파나마(Panama)

15) 콜롬비아(Columbia)

서 시굴을 적절히 하는 게 가능할 때 의심할 바 없이 다른 풍부한 무덤(guacas)이 발견될 것이다.” 이 기자가 지역주민에게 말하기를 “12월 전에 오지 마라. 보카 델 토로로 보다는 차라리 이스머스를 선택하라. 필요 없는 가방을 들고 오지 마라. 텐트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좋은 이불과 요는 아주 중요하다. 곡괭이, 삽, 좋은 재료로 된 도끼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 전부다¹⁶⁾.” “벌커 지침서¹⁷⁾”를 참고해라. 그러면서 이 기자는 이탈리아체와 대문자로 된 한 행으로 그의 글을 결론짓고 있다. “만약에 그대가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 그대로 거기서 지내라” 이 문구는 다음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에 고향에서 무덤을 강탈하며 생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거기서 그냥 머무르라”

왜 정석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가는가. 캘리포니아는 뉴잉글랜드 자손으로 뉴잉글랜드 학교와 교회에서 키워진 후손이다.

모든 목사들 중에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교사는 그렇게 드물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예언자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너그러이 봐주는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되었다. 대부분의 존경하는 선배들, 이 시대의 선각자들은 열망과 전율로 우아하고 회고하는 듯한 미소로 나에게 한마디로 한 덩어리의 금덩어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지 말라고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들은 가장 좋은 충고도 천박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의 요지는 특별히 세상을 개혁하려고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16) 트리분 1850년대 관 10년간을 조사해 봐도 이 인용문구는 없다.

17) 살인범의 지침서. 벌커는 윌리엄 벌커(William Burke, 1792-1829)를 지칭한다. 의학적 해부를 위해 필요한 팔기위한 시체를 얻기 위하여 살인을 행한 아일랜드 범죄자.

다.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요청하지 마라. 그와 같은 것을 요청한다면 당신의 삶은 진절머리가 날 것이다. 생계를 얻는 과정에서 순진무구함을 잃느니 차라리 곧바로 굶어 죽는 편이 낫다. 불순한 사람 안에 순진한 면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악마의 사자에 불과하다.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더 조잡하게 살며 자제도 약간 느슨해지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가장 섬세한 천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불운한 사람들의 비웃음에 게이치 말고 가장 깨어 있는 정신상태에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학과 철학에 있어서 조차도 흔히 사물에 대해 진실 되고 절대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분과와 편협으로 별들 가운데 발굽을 심게 되었다. 별들이 있든 없든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만 하면 된다. 왜 땅뿐만 아니라 하늘마저 더럽혀야만 하느냐! 케인 박사¹⁸⁾가 메이슨이고 존 플랭클린 경¹⁹⁾이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운한 발견이다. 아마도 전자가 후자를 찾아간 이유가 그것이였다는 것은 더 잔인한 제안이다. 중요한 주제에 대해 주석을 달지 않고서 아이의 생각을 출판하는 유명한 잡지는 이 나라에 없다. 그것은 디디에스(D.D.s.)²⁰⁾에게 보내져야만 한다. 그것이 박새류라면 그렇게 하겠다.

당신은 자연현상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인류의 장례식에

18) 엘리사 켄트 케인(Elisha Kent Kane, 1820-1857) 미국의 탐험가, 플랭클린 이 죽은 것을 모르고 1850-51과 1853-55년 구조임무를 지휘했다.

19) 존 플랭클린(John Franklin)경, 영국의 탐험가 북서항로를 찾아서 북극원정 중에 1847년 사망.

20) 명예신학박사들(Doctors of Divinity) 이들은 잡지 출판을 비롯해서 모든 지적인 사업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다.

참석하고 왔다. 약간의 생각이 모든 세상에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역할을 한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두드러지다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대범하고 진실로 편견 없는 자유주의자인 그러한 지적인 사람을 나는 거의 알지 못한다. 당신이 더불어 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제도에 맞서게 되고 이들은 이 제도 속에서 보편적이 아니라 특별하게 사물을 보는 방식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 탁 트인 하늘인데, 이들은 그들 자신들의 낮은 지붕 위에 좁은 채광 창을 끼워 넣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을 가로막는 거미줄을 치우고 창문을 닦으라는 것이다. 몇몇 강연회에서 투표를 해서 종교라는 주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내가 종교에 친숙해 있거나 멀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강연할 때 나는 종교영역으로 접근해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종교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 몽땅 털어놓았으며 청중은 내가 무슨 종교에 관여하는가에 대해 전혀 의심치 않았다. 그 강연은 청중에게 달빛만큼도 해가 없었다. 반면에 내가 역사적으로 가장 대단한 깡패의 전기를 청중에게 읽어주었다면, 내가 자신들 교회의 집사의 전기를 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보통 질문은 어디서 왔느냐? 와 어디 가느냐? 이다. “연사가 강연할 내용이 뭐지?”라고 청중중의 한 명이 다른 이에게 건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질문은 내 입장에서는 전율케 하는 것이었다.

편파심 없이 말한다면 내가 아는 최상의 인간은 고요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가 세상 자체인 사람이다. 대부분 이들은 좋은 상태로 기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밀하게 결과를 돋보이게 하며 공부해 나간다. 우리는 집과 마구간 초석을 놓기 위해 화장암을 선택한다. 그리고 돌로 된 울타리를 쌓는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질이 낮고 본원적인 돌인 화장암같이 강건한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문지방은 썩었다. 가장 순수하고 미묘한 진실이 깃든 사고를 지니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무슨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인가? 종종 나는 나와 가장 사이가 좋은 지인의 크나큰 경박함에 대해 꾸짖는다.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예의와 칭찬이 있는 한 우리는 짐승들도 지니고 있는 정직함과 성실, 바위가 지니고 있는 한결같음과 결속의 교훈을 서로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은 서로에게 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그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국자이며 정치가인 카슈스²¹⁾(Kassuth)에 관한 호기심, 그것이 얼마나 독자적이고 피상적인지를 생각해 보라! 또 다른 종류의 정치 또는 춤일 뿐이지 않은가. 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각자는 대다수의 생각만을 또는 대다수의 생각의 결핍만을 표현했다. 어느 누구도 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지 않다. 늘 상하는 것처럼 그들은 단지 서로에게 기대서 뭉쳐있다. 모두 함께 아무것도 없는 무에 기대어 있다. 이것에 대해 힝두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

21) 라조스 카슈스(Lajos Kossuth, 1802-1894), 헝가리 애국자이며 혁명지도자 미국에는 1851-51년에 여행했으며 대단히 명성이 있었다.

상은 코끼리 위에, 코끼리는 거북이등에 거북이는 뱀에 그리고 뱀 밑에는 허공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대소동의 결실로 우리는 코슈스 모자를 얻는다.

우리가 보통 하는 대화는 정말로 대부분 대단히 무의미하고 무력하다. 피상적인 것과 피상적인 것이 서로 만난다. 우리 삶이 정신적이고 개인적이지 않는다면 대화는 단순한 잡담으로 퇴보되어 버린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신문에서 읽은 기사거리나 이웃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와 우리 동료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가 신문을 읽었고 해외에 갔다 왔으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적인 삶을 사는데 실패하면 할수록 더 끊임없이 절망적으로 우체국으로 간다. 우체국에 의존해서 살아도 좋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편지를 들고서 자신이 광범위하게 편지를 교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걸어 나오는 가련한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에 관한 것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일주일에 신문 한 부를 읽는 것도 나에게서는 너무 버겁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에 나는 신문을 읽으려고 해봤다. 아주 오랫동안 내 고향에 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태양, 구름, 눈, 나무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주인 들을 섬길 수 없다. 하루의 풍요로움을 알고 소유하려면 하루이상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꿈과 기대가 그러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듣는 소식이 왜 그렇게 사소하고 개발이 왜 그렇게 무가치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우리가 듣는 소식은 우리의

천재성에는 소식도 아니다. 그것은 케케묵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스트레스가 당신이 겪어온 특별한 경험에 놓여있는 이유와 25년 후에 증서기록자인 호빈스를 다시 보도²²⁾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 묻도록 자주 유혹 받는다. 그럴 경우 일인치라도 꿈쩍 하지 않아 본 적이 있느냐? 그러한 것이 매일의 뉴스다. 그런 사실들은 곰팡이의 포자처럼 무의미하게 대기로 흩어져 버린다. 그러한 사실들은 무시된 업상체에 또는 우리마음의 표면에 부딪힌다. 마음은 그 사실들에 기반을 마련하고 기생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소식에서 깨끗이 우리 자신을 씻겨 내야만 한다. 폭발과 관련된 특징이 없다면 비록 우리 행성이 폭발한다 하더라도 무슨 중요성이 있겠는가? 건강했을 때 그런 사건에 관해서 최소한의 호기심도 없다. 우리는 헛된 오락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내가 속한 세계가 폭발하는 것을 보려고 코너로 뛰어 달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여름 내내 가을 늦게 까지 아마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신문과 소식에 잠겨있게 되며, 이는 아침 저녁 뉴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걸음걸음이 사건들로 짙어 차있다. 당신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매사츄세츠 들판에서 일어나는 당신 자신의 일을 경청한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사건이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에 속해서 이들과 더불어 살고 이사하고 함께 머무른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로 당신 머리 속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단계위로 초월하든지 또는 밑으로 급강하한다면 그런 것들을 기

22) 가상의 호빈스는 사람들이 외적이고 공적인 경험 또는 행위로 그들을 묘사한다. 그는 더 중요한 내적이고 사적인 경험과 변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억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말로 매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우주적 사실에 부합시킨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신적 건강을 보존하며 살 수 있다. 국가들! 국가들이란 무엇이냐? 타타르 사람, 흉노족, 중국인들! 곤충들처럼 그들은 떼지어 몰려있다. 역사가들은 이들이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 헛되이 노력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결핍되어 있어서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개인들이다. 생각하는 인간은 로맹의 정신을 노래할 수 있다.

“높이서 국가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들은 내 앞에서 재로 변하는구나,

고요하다 구름속 내가 거주하는 곳은

내 휴식의 가장 큰 장은 즐거움이다²³⁾.

제발 바라건대 에스키모 식으로 개들에게 이끌리며 언덕과 계곡을 날뛰며 서로의 귀를 물어뜯지 말고 살자.

이런 위험에 약간의 몸서리를 치면서도, 길거리의 소식들 같은 자세한 사항들을 내 맘속에 얼마나 친숙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종종 깨닫는다. 자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사고에 바쳐져야 할 영역에, 헛된 루머와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종류의 사건이 자리 잡도록 허락하고 그들 맘속을 쓰레기로 가득 쌓아올리는 것을 알고서 질겁을 했다. 우리 마음이 대중이 모이는 곳이나? 그곳에서 거리의 일들과 차 테이블의 한

23) 제임스 맥퍼슨(James Macpherson)의 “오시안의 시”(Poems of Ossian)에서 “Carric-Thura”에 있는 Loda의 영혼에 의한 연설을 바꾼 것.

담이 값싸게 토론되는 곳이 바로 마음이나? 또는 마음은 하늘 자체의 영역인가? 이곳은 신에게 봉헌하는 하늘에 열려 있는 신성한 성전²⁴⁾인가? 나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버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며, 마음이 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만이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서 나의 주의를 짐스럽게 하기가 망설여진다. 대부분 신문이나 대화에서 나온 뉴스들이 그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재판소의 한 사건세목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한 시간 동안 아! 여러 시간 동안 이런 세목이 그들의 바로 그 성소를 불경스럽게 휩쓸면서, 마음의 가장 내부의 공간을 바로 그 법정으로 만들며, 마치 대단히 오랫동안 거리의 먼지가 우리를 차지했던 것처럼 모든 먼지의 움직임, 소란과 더불어 오염이 된 거리의 먼지가 성스러운 우리 사상의 신전을 통과했었다. 그것은 지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자살이 아니겠는가? 내가 할 수없이 몇 시간을 관객이며 청객으로 앉아있으면서 내 이웃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들은 반드시 참석하라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 이었는데 가끔 살금살금 들어와서 잘 씻겨진 손과 얼굴로 주위를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다니고 있었으며, 내 마음의 눈으로 판단해 보건데, 그들이 모자를 벗었을 때, 귀는 갑자기 소리를 듣기 위한 커다란 깔때기모양으로 부풀어 올랐고 귀 사이에 있는 그들의 좁은 머리조차도 혼잡으로 꽉 찼다. 풍차의 바람개비날개처럼 이들은 넓지만 얇은 소리흐름을 파악하고는 큰 조직 속에서 톱니바퀴의

24) 성소중의 성소, 가장 성스러운 장소.

이와 같이 작은 역할을 하는 뇌 속에 흥을 돋구는 회전을 한 후에 다른 쪽으로 나갔다. 그들이 집에 갔을 때 손과 얼굴을 씻기 전에 귀를 씻을 만큼 신중했는지가 궁금하다. 범죄자가 유죄를 선고받기 전에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러한 법정에서 관객, 증인, 배심원, 변호사, 판사 및 범죄자 모두는 똑같이 범인이다. 그래서 벼락이 떨어져 이들 모두를 다 태워 버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종류의 계약과 광고판으로 신성한 법칙에 대해 극단적인 형벌로 위협하면서, 신성시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에서 여기 이 범죄자들을 제외시킨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잊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내가 하천의 개울이라면, 도심지의 오수가 아니라 산의 개울 파르내서스산²⁵⁾의 개울이 되고 싶어할 것이다. 하늘의 법정에서부터 경청하는 이의 마음에 다가오는 한담인 영감이 있다. 술집과 경찰 법정에는 세속적이고 진부한 비밀의 폭로가 있다. 위 두 정보를 똑 같은 귀는 받아들일 수 있다.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귀가 어느 것에 열려있고 닫혀 있는지를 결정해낸다. 내가 믿건대 마음은 사소한 것에 주의를 두는 습관에 의해 영원히 세속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이 사소성의 기미를 띠게 된다. 도로를 쇠석으로 굳히는 마케덤 공법으로 포장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르는 여행마차바퀴를 위해 조각으로 깨어진 기초를 가진 공법으로, 구르는 돌, 가문비나무 블록 및 아스팔트를 능가하는 가장 지속적인 포장도로를 만드는 것을 알

25) 파르내서스 산(Mount Parnassus)는 아폴로(태양신)와 뮤즈(시, 음악, 학예를 주관하는 아홉 여신 중의 하나)에게 신성한 곳이었다. 이 산의 개울은 영감을 주고 신성하다.

려면, 아주 오래 동안 이런 취급을 받아온 우리 마음 한편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신성을 모독했다면, 누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우리자신을 다시 신성스럽게 하기 위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기위하여 신중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치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마음 즉 우리 자신을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아이들처럼 다루어야 한다.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이는 우리들이다. 아울러 어떤 객체와 주체를 우리 마음의 주의에 밀어 넣을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타임지”를 읽지 말고 영원을 읽어라. 관습은 결국 순수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나쁘다. 과학적 사실조차도 만약에 그 사실들을 매일 아침 어느 정도까지 지워 없애고 신선하고 살아있는 진실의 이슬로 풍요롭게 되지 않는다면 과학적 사실들의 무미건조함으로 해서 마음에 때를 끼게 할 수도 있다. 지식은 하나 하나 상세히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섬광의 번뜩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맞다. 마음을 거쳐 가는 모든 생각은 마음을 지치게 하거나 쥐어뜯게 하고 자국을 깊게 한다. 이러한 마음의 자국은 폼페이와 거리에서처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다. 가장 먼 시간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영원의 물가까지 마침내 통과하리라고 믿는 영광스런 거리의 다리위로 행상마차가 가장 느린 걸음으로 운행되는 것이 좋든 안 좋든지 또는 우리가 아는 편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우리가 심사숙고할는지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관계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교양도 세련미도 없이 악마에게 헌신하며 조야하게 사는 기술만이 있는가! 그래서 세속적인 부 또는

명예 또는 자유를 습득하는 기술만이 있는가! 우리에게 부드럽고 살아있는 핵심도 없이 마치 우리 모두가 껍질인 것처럼 그것을 잘못되게 과시하는 기술만이 있는가! 우리제도는 결실 없는 결과를 함유하고 있는 밤나무 가시와 같이 손가락을 가시로 찌르는 데만 적합한 그러한 가시와 같은 것인가!

미국은 자유를 위한 전투가 행해진 곳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확실히 그 전투는 그것이 의미하는 단순히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될 수 없다. 비록 미국이 정치적 압제자에서부터 미국을 자유롭게 했지만 미국은 아직도 여전히 경제적, 도덕적 압제자의 노예이다. 지금 공화국이 정착되었고 로마 상원의원이 영사에게 말했던 “민간정부는 어떤 손상도 받지 않는다”라는 글로 알 수 있듯이 민간정부를 돌봐야 할 때다.

우리는 이 나라를 자유의 땅이라고 부르는가? 조오지 왕에게서 자유로워졌으면서 편견의 왕의 노예가 계속되는 것은 무슨 때문인가?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지 도덕적 자유의 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의 가치는 무엇인가? 노예인 것이 자유롭다는 것인가. 또는 자유롭다는 것이 자유인가. 우리는 어느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치가들의 나라이고 자유에 대해서 맨 바깥쪽의 방어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다. 아마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다. 우리는 부당하게 과세한다. 말로 항의하지 않은 우리의 일부분이 있다. 항의 없는 과세가 있다. 우리는 군대를 집에 숙영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모든 종류의 바보와 소 떼를 숙영시킨다. 우리는 가련한 우리 영혼에 거대한 신체를 숙영시킨다. 그래서 거대한 신체는 가련한

영혼의 본 실질을 집어 삼켜버리게 된다.

진실한 교양과 인간다움에 관해서 여전히 근본적으로 우리는 조야한 편협성을 띠고 있으며 세련된 광범성이 없어서 단지 전형적인 미국인의 특성(Jonathans)²⁶⁾만 있다. 미국에서 우리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편협해지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림자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며, 무역, 상업, 제조, 농업 등과 같은 것에 오로지 헌신함으로써 왜곡되고 편협해졌다. 이러한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다.

영국의회도 편협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더 중요한 그들이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을 때, 아일랜드식 예를 들면 영국식 질문으로 “왜 내가 말 안 했지?”라고 했을 때, 단순한 시골뜨기인 그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그들의 본성은 일하는 곳에서 압도당한다²⁷⁾. 그들의 교양은 제 2의 대상만을 존경한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예절은, 더 멋진 지성과 비교했을 때 서투름과 어리석음이 된다. 가장 멋진 예절은 과거의 패션 즉 단순한 우아함, 무릅장식 및 시대에 뒤쳐진 작은 옷들 같은 패션으로 나타나 보인다. 인격이 계속 없어지는 것은 예의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악 때문이다. 이들은 벗어 던진 옷 또는 껍질로서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속한 존경을 요구하고 있다. 당신은 알맹이 핵심 대신에 껍질로 나타내 보인다. 어떤 물고기의 경우 껍질이 육고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26) 로알 타일러(Royall Tyler)의 『대조』(*The Contrast*)에 묘사된 인물을 보라.

27) 셰익스피어 소네트 III, II. 6-7. “그리고 거의 그때부터 나의 본성은 압도당한다! 염색공이 손처럼 그것이 일하는 곳에.”

골동품 퀘를 소개하려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그 자신을 알고 싶은데 말이다. 시인 텍커가 예수님을 이르기를 “지금까지 살았던 진실된 최초의 신사²⁸⁾”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로는 맞지 않다. 거듭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왕국의 가장 장엄한 곳에서는 로마의 일에 관한 상의는 하지 않고 알프스 저편의 관심만을 상의하는 권위가 갖든 지방적 편협함을 지닌 곳이라는 것이다. 이 왕국은 로마의 일에 관한 상의는 하지 않는다. 집정관 또는 지방총독은 영국의회와 미국의회의 주의를 끄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정부와 입법! 생각건대 이것은 훌륭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천부의 재능을 타고난 누마스(Numas), 입법자 리크루구스(Lycurguses), 현인인 솔론²⁹⁾(Solons)에 대해서 세계역사에서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이름들은 최소한 이상적인 입법자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노예를 양산하는 규정을 입법화하고 담배를 수출하는 입법에 대해 생각해보라. 성스러운 입법자들도 담배 수출입에 관여했는가! 어떤 자비로운 사람이 노예양산에 관계하겠는가? 당신이 이런 질문을 신의 아들에게 진술한다고 가정해 보라. 신은 19세기에 자식이 없느냐? 멸종된 가정이나? 무슨 조건으로 당신은 그것을 다시 얻는가? 버지니아 같은 주가 최후의 날에 스스로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버지니아 주에서 이것은 주요산물이며 주의 기본 재산인 것을. 그런 주에 애국심을 위한 무슨 기반이 있겠는가? 내가 이런 사실을 쓰는 것은 미국에서 출판된 통계표에서 알아낸 사실이다.

28) 토마스 텍커(Thomas Dekker, 1572?-1632?)가 쓴 [정직한 매춘부] (*The Honest Whore*)(1604) 1권 ii 페이지. 토마스 미들톤(Middleton)과 공동으로 씀.

29) 로마,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설적인 입법자.

견과와 건포도를 찾아 모든 바다를 하얗게³⁰⁾ 만들고 이 목적을 위해 선원들을 노예로 만드는 상업. 그전 날 파선된 배한 척을 보았다.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고 누더기, 로렘나무 열매, 쓴 아몬드 짐이 바닷가에 흩뿌려져 있었다. 로렘나무 열매와 쓴 아몬드를 실어 나르기 위해 레그혼과 뉴욕사이에 가로놓인 바다 위험에 도전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았다. 미국은 쓰디쓴 것을 찾아서 구세계로 보내는 것인가! 인생운명이 여기서 추락하도록 할 만큼 충분히 쓰디쓴 것은 짠 바닷물도 아니고 난파도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은 상당부분 우리가 자랑했던 상업이다. 당밀통 주위로 물려드는 파리와 같은 활동, 진보와 문명이 이러한 종류의 교환과 활동에 긴히 의존한다고 생각할 만큼 맹목적인 자칭 정치가와 철학자들이 있다. 인간이 이익을 내는 것이라면 인간은 아주 잘 주목한다. 만약에 인간이 모기라면 나는 아주 잘 답한다.

우리정부에서 중위 허돈³¹⁾을 아마존을 탐색해서 노예영역을 넓히라고 보내졌다고 한다. 허돈은 그곳에는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근면하고 활동적인 사람들, 인생의 안락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나라의 위대한 자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위적인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불어 넣어줄 인위적인 필요는 무엇인가? 내가 믿건대 그의 고향 버지니아의 담배와 노예와 같은 사치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 고향 뉴잉글랜드의 얼음, 화강암과 다른 물질적인 부도 아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가장 큰 자원은 이것을

30) 뚝단배의 뜻으로.

31) 윌리엄 루이스 허돈(William Lewis Herndon, 1813-1857) | 아마존 계곡 탐험 | (*Explorations of the Valley of the Amazon*)(1854) 저자.

생산해내는 토양이 기름지거나 또는 황폐함도 아니다. 내가 다녀왔던 모든 주에 주로 없는 것은 그곳 거주민의 고귀하고 진지한 의지였다. 이 고귀한 의지만이 자연의 위대한 자원을 끌어내고 마침내 자연 자원을 능가하는 것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자연가운데서 죽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자보다도 교양을 더 원할 때, 설탕보다도 계몽을 더 원할 때 그때라야만 세상의 큰 자원에서 세금이 걷히고 이 자원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는 주요산물은 노예가 아니고 직공도 아니고 인간이 된다. 즉 영웅, 성인, 시인, 철학자. 구세주라 불리는 그런 드문 열매인 인간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바람이 멎은 곳에 휘몰아쳐 쌓인 눈이 있듯이 진리가 중지된 곳에 관습이 생겨난다고들 한다. 하지만 진리는 바로 제도에 휘몰아쳐 마침내 다시 관습을 불어 쓰러뜨린다.

소위 정치는 꾀 대단히 피상적이고 잔인한 어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가 나에게 중요성을 띠는 것을 전혀 인식해본 적이 없다. 신문은 무료로 정치 또는 정부에 특별히 난을 할당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방식이 신문을 지키는 모든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문학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진리도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정치 난을 결코 읽지 않는다. 나는 올바른에 대한 나의 감각을 아주 많이 무디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대통령의 메시지 단 하나를 읽었던 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이상한 세상이다. 이 시대에 제국, 왕국, 공화국이 개인의 문간에서 냉대 받고 바로 그 개인 곁에서 그들의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나는 신문을 집어 올릴 수가 없다. 하지만 비참한 정부나 또 다른 정부는 심하게 강요하고 최후의 행정으로 독자인 내가 정부를 위해 투표하라고 중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상황은 이태리 거지보다도 더 끈질기다. 그리고 정부가 영어 한마디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운 상인의 점원 또는 증명서를 건네준 매니저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의 증명서를 볼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나는 배수비오 활화산 폭발 또는 포강의 범람, 이런 것들을 읽을 것이며, 사실이든 꾸며낸 것이든지 간에 이런 사실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 정부가 끈질기게 구걸하는 경우에 나는 일하라고 하거나 사실 구빈원을 찾아가라고 제안하는 것을 제시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내가 흔히 하는 방식대로 정부는 왜 자체의 성곽을 조용히 유지하지 못하는가? 가련한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완전히 어리둥절 당황하고 있다. 신문은 지배하는 힘이다. 어떤 다른 정부도 성의 독립³²⁾에 쓰이는 몇 개의 해병대로 축소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데일리 타임스 읽기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그에게 무릎을 꿇어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에 유일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일상적으로 흔히 하는 일들처럼 현재 인간의 주의에 가장 많이 관계하는 것들이 인간사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기능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수행돼야만 한다. 마치 신체의 조화스런 기능처럼 말이다. 그것들은 식물의 일종인 하위인간이다. 때때로 나는 정치와 일상적인 일들이 내 주위에서 계속된다는 그런 의식을 하며 깨어난다.

32) 포트 인디펜던스(Fort Independence) 보스턴 항구에 있는 것.

마치 병적인 상태에서 소화과정을 의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위 소화불량증에 걸린다. 이것은 마치 사상가가 창조 의 큰마음에 의해 자신이 깎아져 내리도록 하는 것과 같다. 정치는 말하자면 사회의 마음이며, 모래와 자갈로 가득 차서 그 두 정당은 반대하는 양쪽이며, 때론 사분의 일로 갈라져 서로를 짓밟을 수도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만성 소화불량증을 앓고 있다. 나라가 소화불량에 걸린 현상을 스스로 드러내며 어떤 종류의 달변을 하는 것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이리해서 우리인생은 완전한 망각³³⁾이 아니지만 또한 슬프다! 확실히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아닌 때에 결코 의식하지 말았어야만 하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화불량 환자로 항상 만나 나쁜 꿈을 이야기하지 말고 영원히 영광스런 아침에 서로 서로를 축하하기 위하여 정상인³⁴⁾으로 만나면 왜 안 되는가? 나는 분명히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3) 워즈워드의 “암시 송”(“Intimations Ode” I 58) “우리의 탄생은 단지 잠이고 망각이다.”(“Our birth is but a sleep and a forgetting.”)

34) 건강하고 완전히 깨어 있는 개인.

「 사랑 」

남성과 여성간의 근본적 차이가 서로에게 매력적이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게 해답을 못 내리고 있다. 남성에게는 지혜의 영역을 여성에게는 사랑의 영역을 구별해서 부여하는 것은 옳바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랑이나 지혜가 반드시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끊임없이 “왜 당신은 더 현명하질 않아요?”라고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왜 당신은 더 자애롭지 않아요?”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 현명하고 자애롭게 되는 것이 자신들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이나 남성 각자가 현명하면서 동시에 자애롭지 않다면 지혜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비록 다른 방식 또는 다른 감각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모든 초월적인 지극한 신의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지극한 기쁨은 하나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극한 기쁨을 감지하고, 음악을 들으며 이를 느끼고, 향기에서 그 기쁨을 음미하며, 순수한 미각은 향미를 맛보고 지극한 기쁨을 감지한다. 더불어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 전 신체가 그 지극한 기쁨을 느낀다. 변화는 표면에 또는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정체를 표현하질 못한다. 연인은 황혼이 질 무렵 서쪽 하늘을 황혼 빛으로 물들이는 저녁노을의 아름다움과 꼭 같은 아름다움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응시할 때 느끼게 된다. 인간의 눈꺼플 밑에 숨어있는 악마는 하루해가 지는 황혼녘에도 꼭 같이 숨어 있다. 작은 영역 안에 옛부터 내려온 아침과 저녁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어떤 자애로운 천문학자가 눈 속에 담긴 천상의 심오함을 통찰해본 적이 있겠는가?

소녀는 들판에 있는 어떤 꽃받침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열매를 자신 안에 품고 있다. 이 소녀가 자신의 순결함과 고상한 의지를 확신하며 겸손하게 둘러서 피하는 얼굴로 걸어간다면 하늘이 회상에 잠길 것이고 모든 자연이 겸손하게 이 소녀를 자신들의 여왕이라고 자백할 것이다.

이런 정취가 흐르는 분위기에서 남성은 영원 속 아침의 서풍에 소리를 내는 애올리안 하프를 울리게 된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랑의 통속성 속에는 하찮은 뭔가가 있다. 옛날에 이 독을 따라 살았던 아주 많은 인디언 청춘남녀가 위대한 문명인의 영향에 굴복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는 정떨어지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비록 우리는 불완전한 매체이지만, 사랑은 우리의 불완전성과 함께 하지도 않는다. 비록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지만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다. 꼭 같은 성스런 영향이 이 독에 머물러 있다. 무슨 종족이 여기에 거주하든지간에, 비록 인류가 여기서 살지 않더라도 아마 사랑은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아마 본능은 가장 강렬한 실제 사랑을 거치면서 살아 남는다. 이렇게 살아남은 본능은 완전한 포기와 애착을 막아주고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까지도 약간 자제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본능은 변화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열렬한 연인은 실제로 현명하고 영원히 지속할 사랑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우정이 아주 드물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놀랄만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천재성을 고려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본성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배우자를 찾는 데 더 가까이 있어보지도 않고서 사랑에 취해 버릴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결혼의 근저에는 양식이라기 보다는 선량한 본성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있다. 하지만 선량한 본성은 선량한 정신 또는 지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만약에 상식을 고려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인가? 만약 비상식 또는 신성한 의식을 참고로 했다면 우리가 목격하는 바와 같은 결혼이 얼마나 적게 행해졌을 것인가!

우리 사랑은 상승할 수도 있고 또는 하강할 수도 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만약에 사랑에 대해 언급될 수 있다면

“우리는 천상의 영혼들을 존경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아래 영혼들만을 사랑한다.”

사랑은 잔인한 비평가다. 증오가 사랑보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다. 가치있는 사랑을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엄격한 시련을 겪어야만 한다.

당신이 보기에 그녀의 가치가 많아서 그녀를 당신친구로 만드느냐? 그러한 그녀가 당신친구냐? 아니면 당신이 고귀하고 특별한 덕을 갖추어서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고 매력적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녀는 그러한 것들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냐? 당신이 출세가도를 달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를 만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좋아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은 그녀와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

사랑은 불꽃같은 빛이 돼야만 한다. 통찰이 없이는 가장 순수한 영혼의 행위조차도 결국은 조야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

심세히 인식할 수 있는 남성은 단순히 감상적인 여성보다도 더 정말로 여성적이다. 심정은 맹목성을 띠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 어느 신도 대단한 식별력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랑과 우정에 있어 심정만큼이나 많이 상상력이 발휘된다. 심정과 상상력 중 어느 한쪽이 지나치면 다른 쪽은 소원해지게 된다. 흔히 먼저 상처 입는 것은 심정보다는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한층 더 대단히 민감하다.

심정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점을 다소 면해줄 수가 있지만 상상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상상력은 안다. 어떤 것도 상상력의 등지 밖에서부터 상상력의 시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상상력은 심정을 통제한다. 나의 심정은 계곡 쪽으로 가는 것을 여전히 갈망하지만 상상력은 계곡에서 나를 가로막는 절벽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상처받고 날개가 부러지고 밑으로 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실수투성이인 심정이어!” 라고 어느 시인은 노래한다. 상상력은 결코 잊는 법이 없고 다시 기억한다. 상상력은 토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다. 상상력만이 지성적인 모든 지식을 사용한다.

사랑은 비밀 중에 가장 심오한 비밀이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라도 노출되었을 때,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마

치 당신을 사랑했던 것은 단지 나인 것처럼. 사랑이 끝났을 때 그 때에 사랑은 노출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체할 때 교체 끝에 불만 없이 질문에 답했기를 바란다. 교체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꼭 같은 확실하고 보편적 목적에 답했기를 바란다.

남이 어떤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와 헤어졌다.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동정심으로 모든 것을 헤아려서 알았어야만 했는데 그녀에게 말해야 했던 것은 우리사이에 차이점 즉 오해였다.

연인은 누군가가 말하는 어떤 것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이가 말하는 것은 혼한 것으로 들리거나 진부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트렌크(Trenck)가 땅속에서 채광 작업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두더지라고 보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는다.

사랑하는 이와 그의 관계는 여러모로 더럽혀질 수도 있다. 이 둘 관계가 꼭 같이 신성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마술과 마약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연인이 안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녀가 투시자와 의논했다는 것을 그가 듣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마술을 즉시 깨져 버릴 것이다.

흥정과 값을 깎는 것이, 거래할 때 나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사랑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쁜 것이다. 사랑은 화살에서처럼 똑바름을 필요로 한다.

그녀가 우리에게만 어떤 사람인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잊을 위험이 있다.

연인은 어떤 편파성도 원치 않는다. 올바른 것만큼 친절 하라고 그는 말한다.

“당신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슴으로 판단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친절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사랑스런 부분에서.

당신은 땅, 바다, 공기에 뻗쳐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도처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대를 추구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통해 나는 그대를 구애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사랑만큼이나 당신의 증오도 필요하다. 나에게 있는 사악한 것을 당신이 쫓아낼 때, 당신은 나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로 정말로 비록 내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만 모든 나의 사랑
또는 모든 나의 증오 어느 것이 말하기에
더 쉬운지를 이야기 할 수 없구려
당신이 혐오스럽다고 내가 말할 때도
당신은 나를 확실히 믿겠죠.
거의 좌절시키는 그런 증오로
나는 당신을 증오하오.
하지만 때때로 나의 의지에 반해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그대를 여전히 사랑하오.
순수하고 편견 없는 증오가 조금
가라 앉았다는 것은 우리사랑에 반역이고
하늘에 계신 신께 죄가 되오.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우리는 진실된 상태에 있기 위한 고상한 결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지로 생활에서 진실된 행동을 해야한다.

그녀와 우리와의 관계처럼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로 드물 것임이 틀림이 없다. 우

리는 조건을 지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전체를 사람과 사귀는데 바쳐야 한다. 우리는 사교를 떠나서는 어떤 의무도 가지지 말아야만 한다. 매일 너무 놀랍고 아름답게 과장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나는 내 친구를 그녀의 낮은 자아에서 끄집어내서 그녀를 더 높고 무한히 높은 곳으로 올려놓아 거기서 그녀를 알 것이다. 하지만 흔히 사람들은 중요만큼이나 많이 사랑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저속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봉사하기 위한 유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간에 헌신할 만큼 충분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확실히 술통이나 채우고 있음에 틀림없다.

당신이 걸어갈 때 당신이 단지 낮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당신을 알고 당신이 아는 사람이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는 것이, 농장에 금광이 있다는 것이, 당신문간 앞에 자갈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는 것 등 이런 일들은 얼마나 드문 일들인가! 지구상에 있는 사람하고 당신이 하루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인연인가? 당신이 걸어갈 때, 동반자로 신 또는 여신이 함께 하든지 머슴, 악당, 촌놈들과 함께 걸든지 간에 이런 것은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친구는 사슴이나 토끼만큼 풍광의 아름다움을 높이지 않을 것인가? 들판에 옥수수과 초원에 덩굴월굴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그런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새로운 충동으로 꽃들은 필 것이고 새들은 노래할 것이다. 다가올 시대에는 더 아름다운 날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 앞에서 영원으로까지 넓혀지고 성장한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스런 모든 대상을 포함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하나로 합일이 된다.

「순결과 관능」

성이라는 주제는 놀랄만하다. 왜냐하면 성의 현상은 직접 간접적으로 대단히 많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인류는 이를테면 최소한 흔히 서로 서로에게 성에 대해 침묵하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사실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중의 하나가 어떤 다른 신비보다도 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종교에 속한 것은 확실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은 비밀과 경이로움에 쌓인 채 다루어지고 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이 사실과 관련된 즐거움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영원한 정사, 성활동과 같은 많은 것에 대한 말이 퍼뜨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웨이커 교도들은 성에 대해 말하는 관습 때문에 이에 대해 대단히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인류는 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관습 때문에 성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말할 가치가 없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되게 서로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교육은 거의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순수하게 교제할 때에는 성교라는 주제를 부끄럽고 존경스럽지 못한 것으로 피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단지 암시만 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그것을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취급할 것이다. 아마 비슷한 신비처럼 단지 회피되지는 않을 것이다. 창피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럼 성관계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의심할 바 없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불순함뿐만 아니라 순수함이 훨씬 더 많이 있다. 흔히 인간은 결혼이라는 개념을 관능성과 다소 결부시킨다. 허나 세상의 모든 연인은 결혼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많은 순수함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순수한 사랑을 한 결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혼에는 관능적인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순결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

정적인 어떤 것이다. 순결은 특히 결혼한 사람들의 미덕이다. 모든 욕망과 저열한 즐거움은 더 고귀한 즐거움에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우수한 존재로서 만난 이들은 열등한 존재들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사랑 행위는 개인 행동이 문제시 될 수 있는 것보다 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드문 상호존경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끊임없이 쌍방이 더 고귀하고 순수한 삶을 살도록 서로 서로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관련되는 행위는 정말로 순수하고 고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순수함과 더없이 맑은 천진난만함에 견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더 나은 자아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종교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 앞에서처럼 반드시 처신하게 된다.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앞에서보다 더 경이로워 할 수 있는 무슨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게으르기 때문에 추워서 고양이, 개, 게으른 사람이 불에 다가가듯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이 사랑의 따뜻함을 구한다면 당신은 밑쪽으로 하강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게으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된다. 얼음과 눈이 덮인 들판에서 반사되는 태양의 차가운 온기가 더 낫다. 아니면 겨울 계곡에 있는 태양의 온기가 더 낫다. 천상의 사랑의 온기는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이에게 기운을 분돋우고 힘껏 디디고 버티게 하는 것이다. 난롯가에 쪼그리고 앉지 말고 건강한 운동을 해서 신체를 따뜻하게 해라. 당신보다 더 낫지 않은 사람의 동정을 비열하게 구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고귀한 행위를 해서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라. 인간의 사회적 정신적 수양은 그의 신체에 보상해주어야만 한다. 자기가 한일에 단단히 책임지는 그 사람처럼 굳센 심정을 가진 친구에게 기대야만 한다. 그는 그가 마실 유일한 음료로 차가운 물을 마셔야만 한다. 그래서 감언이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순수하고 새롭게 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친구의 동정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매일 봄의 물처럼 차가운 진리로 목욕재계해야 한다.

사랑은 조금이라도 방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서로 서로

를 받아들임으로서가 아니라 거절함으로서 사랑하자. 사랑과 욕정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사랑은 좋은 것이고 욕정은 나쁜 것이다. 애정 깊은 이가 고귀한 본성을 지니고 동정심을 나타낼 때 사랑이 있게 되고 저열한 본성으로 동정할 위험이 있으며 이때에 욕정이 생기게 된다. 반드시 신중히 의식해야만 하지만 애정을 긴밀히 접촉할 때, 서로 서로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포용력이 없이는 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성스러운 생각만을 관련시킬 만큼 그렇게 많이 친구를 사랑해야만 한다. 불순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단지 만나보는 것으로 추락하게 된다.

애정의 쾌락 여기에도 위험이 있다. 겨울아침의 그것처럼 우리 사랑에도 약간의 뻘뻘스러움과 영웅적 자질이 있음에 틀림없다. 모든 나라의 종교에는 순수함이 암시되어 있다. 인간이 순수함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게 두렵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향상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랑이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를 취하는 사랑은 우리를 격하시킨다. 애정에 대해 오점이 남지 않도록 우리 애정을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 사랑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랑을 하도록 하소서!

아주 풍부한 많은 상징의 언어가 없어지는 것은 관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꽃들은 무한한 색조와 향기로 식물이 결혼으로 맺어진 결실을 개화로서 경축하는 것이다. 꽃은 또한 진실된 모든 결혼의 공공연하고 의심할 바 없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인간의 개화기는 이 결혼과 더불어 도래하는 것이다.

처녀성은 꽃봉오리 맺어진 꽃이다. 불순한 결혼으로 처녀는 순결을 잃게 된다. 꽃을 사랑하는 이는 누구든지 간에 아가씨와 순결을 사랑한다. 사랑과 욕정은 꽃이 있는 정원과 갈보집이 아주 다른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리매우스(Limaeus)가 편집한 『아모니타트』 (*Amoenitates Botanicae*)에서 J 비버그(Biberg)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라틴어로 된 이 부분을 내가 번역했다) 마치 노출시키면 창피한 것처럼 동물세계에서 대부분 숨기는 생식기관을 식물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시킨다. 식물이 결혼을 했을 때 식물들이 응시자들에게 주는 기쁨은 놀랍다. 가장 바람직한 색조와 가장 달콤한 향기로 감각을 향기롭게 해주는 동시에 벌들, 다른 곤충들, 벌새는 말할 것도 없이 꿀샘에서 꿀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고갈된 꽃가루에서는 밀랍을 모은다. 리내우스는 꽃받침을 타라머스(thalamus) 즉 신흔방이라 불렀다. 그리고 꽃부리 화관을 오라움(aulaeum) 장식용 태피스트리라고 했으며 꽃의 각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간다.

사악한 영혼이 꽃 자체를 타락시켜서 향기와 아름다운 색조를 강탈해서 결혼을 해야될 수 없는 창피와 오욕으로 만들어 버릴지 누가 알겠는가? 이미 사악한 영혼은 다양한 성질을 띠고 있으며, 6월 저지대를 오물냄새로 가득 채우는 사악한 영혼이 깃든 결혼이 있다.

내가 꿈꿔온 성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다. 나는 성교에 대한 생각을 지녀왔다. 성교는 내 경험상 가장 빨리 지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속한다.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적, 계시, 영감, 과거의 일들 같은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진실된 결혼은 빛으로 밝게 하는 계몽과 결코 다르지 않다. 진리를 완전히 인식했을 때 성스러운 환희와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황홀한 기쁨이 있다. 청년이 사랑하는 그의 약혼녀를 품에 안았을 때도 진리를 깨달았을 때와 같은 기쁨이 있다. 이렇듯 진실된 결혼의 근본적인 기쁨은 진리를 터득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같은 것이 된다.

이런 결합에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서 불멸의 인류가 생겨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궁은 가장 비옥한 흙이다.

누군가가 인류종족이 향상될 수 없는지 인류가 소 때처럼 양육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사랑이 순결해지도록 하면 나머

지 모두는 뒤따를 것이다. 정말로 순수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다.

재생산 번식에 대한 유일한 변명이 항상이다. 자연은 반복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짐승들만이 자신들의 종을 증식시킨다. 하지만 고귀한 남성과 여성의 자손은 그들 부모의 열망이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부모보다도 우수하다. 그대는 결실로서 부모를 알게 될 것이다.



「가을의 색조」 35)

미 대륙에 온 유럽 사람들은 미국의 가을 나뭇잎의 아름다운 광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영국 시에는 이런 가을 낙엽현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왜냐하면 영국의 나뭇잎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띠지 못하기 때문이다. 톰슨의 시 “가을”에서 낙엽이란 주제로 다음 시 한 구절에서 노래한 것이 제일 두드러진 가을 낙엽에 대한 것이다.

“보라 저 시들어 가는 다양한 색채의 숲을
그들이 점점 깊어지며 시골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구나, 무성한 나뭇잎의 모든 색조가
희미한 갈색으로 변하고
시들해 가는 초록색에서
거무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있구나³⁶⁾”

그는 다음 행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가을에 노란 숲이 밝게 빛나고 있도다.”

미국 숲의 가을철 변화의 모습을 미국문학 작품에 아직껏 심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0월의 아름다운 색조도 미국 시에 가미되지 않았다.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단풍드는 가을철에 시골로 올라올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 꽃 또는 올해의 익은 과실을 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언젠가 한 도시 시민과 가장

35) 「가을의 색조」는 1858년 소로우의 『일기』에서 주로 발췌했다. 1858년 가을에 강연하기 위해 씌어졌으며 1859년과 1860년에 몇 번 강연을 했다. 『애틀랜틱 먼슬리』 1860년 10월호에 출판되었다.

36)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의 『계절』(The Seasons)

아름다운 가을 단풍 빛을 보기에 너무 늦었지만 15일 동안 말을 타고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단풍을 보고 놀라워했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단풍 빛이 있었다는 것을 믿질 못했다. 도시에 사는 많은 이들은 이런 가을빛을 결코 구경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매년 이런 풍광을 거의 기억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은 단풍으로 갈아입은 나뭇잎을 시든 잎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마치 잘 익은 사과를 썩은 사과로 착각하는 것처럼), 잎사귀가 더 고귀한 색깔로 갈아입는 것은 과실이 잘 익었음을 나타내면서 최후의 완전한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증거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데 있고 가장 오래된 잎사귀들이다. 하지만 날개가 완전히 달리고 밝은 색깔의 곤충은 보통 단명하듯이, 무르익은 잎사귀는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과일은 익어갈 때, 떨어지기 바로 전에 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원천인 공급원에서 영양소를 덜 필요로 하면서, 줄기를 통해 흙에서 영양분을 받아드리기 보다는 태양과 공기에서 더 밝은 색조를 얻는다. 나뭇잎도 그렇다. 생리학자는 “산소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사실을 단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는 아가씨가 어떤 특별한 다이어트 식을 하느냐를 아는 것보다 아가씨의 장밋빛 뺨에 더 관심이 있다. 마치 지구 그것 자체가 줄기에 달려 있는 과일로 태양을 향하여 뺨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숲과 풀, 지구표면은 무르익은 것을 나타내는 밝은 색조를 지녀야만 한다.

꽃들은 채색된 잎사귀에 지나지 않으며, 과실은 무르익은 잎사귀인 것이다. 대부분의 과실의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생리학자가 언급한대로 잎사귀가 만든 “연 세포 조직 또는 잎사귀의 다육질 조직”이다.

우리의 식욕 때문에 우리는 무르익음과 무르익는 그런 현상,

색조, 익어 달콤함, 완숙함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먹는 과실에 한정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무한한 추수 수확물이 자연에서 매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가 쉽다. 우리 지방에서 매년 열리는 가축 품평회와 원예작물 전시회에서 저열한 목적으로 쓰이고, 아름다움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을 과일 전시회를 크게 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을 반대편과 우리 마을 내에서도 매해 또 다른 종류의 과일 품평회가 열린다. 아주 대규모로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취향에 초점을 맞춘 과일 품평회를 열고 있다.

10월은 단풍의 계절이다. 단풍이 물들어 산을 붉게 타오르게 하는 빛이 세계를 밝게 빛나게 한다. 단풍이 떨어지기 전에 과일과 나뭇잎과 가을날 하루하루 자체가 밝은 색조를 땀에 따라 한해도 기울어 가는 것이다. 10월은 낙조순간의 하늘빛이고 11월은 더 늦은 황혼이다.

이전에 나는 견본으로 나뭇잎을 모아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각 각 변하는 나무, 관목과 초본식물들이 가장 밝고 특징 있는 색깔을 떨 때 초록색에서 갈색상태로 변하는 것을 윤곽을 그리고 색깔을 정확하게 복사해서 책에다 물감으로 그려 넣고 제목을 “10월 또는 가을의 색조”로 할 것을 생각했다. 가장 일찍 붉게 물드는 담쟁이덩굴과 기본적인 잎들의 진홍빛으로 시작해서 단풍나무, 호두나무, 옷나무, 아름답게 반점이 있는 일반적으로 덜 알려진 많은 나무들에서 가장 최근의 참나무에서 포플러 나무까지 할 생각을 했었다. 그런 책은 정말로 기념물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이 산책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을 숲을 따라 소요하면서 나뭇잎을 뒤집어 보는 것만으로도 이를 위해서 충분할 것이다. 아니면 색이 바래지 않은 잎사귀 자체를 보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책을 많이 진척시키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잎사귀들이 밝은 색조를 띠며 단풍드는 순서에 따라 이들의 밝은 색조를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다음은 내가 짤막하게 메모해 놓은 것에서 뽑은 것들이다.

자줏빛 풀들

8월 20일 경에 숲과 늪지 도처에 풍부히 흩어져 있는 청미래덩굴속 식물잎과 푸나무서리, 시들어가고 거무스름해지는 얇은부채와 크리스마스 로즈, 강가에 있는 이미 검으스름해진 폰테데리아(*pontederia*)를 보고서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다.

자줏빛 풀(*Eragrostis pectinacea*)은 지금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르고 있다. 나는 처음 이 풀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을 여전히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 강가 언덕배기에 서서 30에서 40로드 떨어진 곳에서 숲가 밑에 있는 6로드 길이의 보랏빛 풀 기다란 한 줄을 보았다. 그 곳 땅은 초원 쪽으로 경사가 나있었다. 그 풀은 밀접하고 뺨뺨이 열려 있는 열매에 있는 오점처럼 더 짙은 보라색을 띠면서 렉시아(*rhexia*)의 조각처럼, 그렇게 밝지는 않았지만 색깔이 보기 좋았고 흥미로웠다.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았을 때, 그 풀은 꽃피어 있는 풀 종류라는 것을 알았다. 일 피트 높이도 안 되는 초록색 잎은 조금 있었으며, 보라색 꽃들이 뭉치로 뻗어있었고 얇은 보랏빛 안개가 내 주위에서 떨고 있었다. 가까이서는 그것은 우중충한 보랏빛으로 보였고 보기에 별 인상적인 것이 없었다. 심지어는 알아보기조차 어려웠다. 한 식물을 잡아 뽑아 보면 그 식물이 얼마나 얇은지를 알고 놀랄 것이다. 색깔도 거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멀리서 알맞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멋진 생기 있는 보랏빛 꽃과 같은 색깔로 지구를 풍요롭게 하는 식물이 된다. 그러한 미약한 원인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분명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풀은 흔히 수수하고 소박한 색깔이기 때문에 한층 더 놀랍고 매력적이였다.

풀은 아름다운 보랏빛 붉은 빛을 이곳에 보태고 있고 이 풀로 해서 나는 렉시아를 상기한다. 이 렉시아는 지금 낙엽이 전부 진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8월의 가장 흥미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가장 섬세한 풀 군락은 들판가장자리 바로 위 마른 언덕 기슭에 불모지 또는 땅의 가장자리에서 자란다.

그곳에서는 탐욕스럽게 풀 베는 사람도 황송하웁게도 낫을 휘두르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눈이 미치지 않은 곳에 있는 얇고 연약한 풀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풀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풀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같은 눈이 달린 사람이라도 이것과 큰조아재비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풀 베는 사람은 신중하게 들판의 건조용 풀과 이 아름다운 풀 바로 옆에서 자라는 더 영양가 있는 풀을 베다. 하지만 산책하는 사람이 수확을 거두라고 이 멋진 보랏빛 안개를 그냥 놔두었다. 그의 상상의 동물 종을 위해 비축했을지도 모르겠다. 언덕 더 높은 곳에는 아마 또한 검은 딸기, 존즈 풀(John's wort)과 사람 눈에 뜨이지 않고 시들고 뺏뺏한 6월의 풀이 자라고 있다. 그런 풀들이 그런 높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울창한 풀들 속에서 매년 잘리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연은 쓰임새 있게 하면서도 자연의 미를 분명히 보존한다. 나는 그렇게 특정한 지역에 있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곳에서 풀들은 매년 자신을 반드시 드러내서 홍조를 띠면서 지구를 아름답게 물들인다. 그 풀은 완곡한 경사지 또는 이어진 작은 구역, 반경 일 피트인 흩뿌려지고 둥그렇게 된 관목 속에서 자라며 서리가 최초로 내려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아름다움을 뽐낸다.

대부분의 식물에서 꽃부리와 꽃받침은 가장 좋은 색깔을 띠는 부분으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식물에서 그것은 과피 또는 과일이기도 하다. 다른 식물인 경우와 빨간 단풍나무인 경우는 잎이 된다. 또 다른 식물인 경우 그것은 중요 꽃 또는 개화하는 부분인 바로 줄기 그것 자체가 된다.

특히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자리공에 관한 것이다. 절벽 밑에 있는 어떤 자리공을 볼 때 자줏빛 꽃자루로 해서 이 시기와 9월 초에 눈이 부실 정도로 이 아메리카 자리공은 대부분의 꽃들처럼 흥미롭다. 그리고 이것은 가을의 가장 중요한 과실 중 하나다. 모든 부분이 꽃(또는 열매)이고 색깔이 남아 돌아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꽃자루, 가지, 작은 꽃자루, 잎꼭지 심지어는 노르스름하고 보랏빛 잎맥이 있는 잎사귀까지. 초록색에서 짙은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조 열매의 원통모양의 꽃차례, 6에서 7인치 길이의 꽃차례는 우아하게 사방으로 수그리고 있으며 새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새들이 열매를 쪼아 먹는 꽃받침조차도 같은 종류 어떤 것이나 꼭 같이 심홍색 불꽃같은 반사 빛을 지닌 밝은 진홍색이다. 모두가 무르익어서 불타는 빛을 내고 있다. 붉은 도료 니스에서 락카가 나왔다. 심홍색으로부터 시작해서 꼭 같은 꽃봉오리, 꽃, 초록빛 열매, 짙은 보랏빛 익은 열매와 이 꽃 같은 꽃받침은 모두가 동시에 같은 식물에 있다.

사람들은 온대 식물 상에서 붉게 타오르는 단풍 빛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붉은 색은 색 중의 색이다. 이 식물은 우리 혈액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식물은 자신을 비추는 밝은 태양보고 자신이 최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식물은 한해 중 이철에 보아야만 한다. 따뜻한 언덕배기에서 이 식물 가지는 8월 23일경에 무르익는다. 그 날짜에 맞추어 나는 이 식물들이 일찍 무르익는 곳인 절벽 중 한곳으로 갔다. 6에서 7피트 높이로 이루어진 이 식물이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작은 숲을 통해서 걸어갔다. 깨끗한 초록 잎과 대조되는 꽃과 더불어 땅쪽에 있는 식물은 짙은 밝은 보라색 이었다. 자연이 이런 식물을 자라게 해서 완성시켰다는 것은 자연의 위대한 승리로 보인다. 마치 이것으로 여름이 충분히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 식물은 정말로 완벽한 성숙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것은 죽어야할 때에 죽음으로서 종결을 지은 성공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연에 광채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도 아메리카 자리공처럼 부패한 것 속에서 성장하며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성숙시켜도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 식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다. 지팡이를 삼으려고 가지 하나를 꺾는다. 왜냐하면 솔직히 나는 그것을 다루고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손가락 사이에 열매를 놓고 눌러 즙이 나오면 손에 채색하는 것을 즐긴다. 자줏빛 와인의 바르게 가지를 뺀 통 사이를 걸으면서 이 와인은 일몰의 황홀함을 보유하고 있고 발산시키고 있다. 런던 부두에서 파이프를 세는 대신에 눈으로 하나하나를 맛보면서 이 사이를 걸어

가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연산 포도주는 포도 나무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시인들은 자신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외국식물이 만들어낸 산물인 포도주에 대해서 노래해왔다. 마치 우리 자신의 식물들은 시인들이 노래한 포도주보다도 더 많이 주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하듯이 말이다. 정말로 누군가는 이것을 미국의 포도라고 칭해왔다. 그래도 미국 토종 식물에서 나온 주스를 포도주 색깔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류시인은 이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이 식물의 좋은 점을 찬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할 의지만 있다면 서쪽하늘을 새롭게 다시 칠하고, 이 열매로 바카스제를 올릴 만큼 충분히 많은 열매가 있다. 바카스제에서 춤출 때 사용하기 위하여 진홍색 줄기는 어떤 플릇을 만들 것인가! 아메리카 자리공은 정말로 고귀한 식물이다. 나는 아메리카 자리공 가운데서 명상하면서 올해 저녁나절을 보낼 수도 있다. 아마 이 자리공이 자라는 자그마한 숲에서 철학 또는 시학교가 마침내 새롭게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자리공은 9월 내내 계속된다.

이것과 동시에 8월 말 경에 내게 아주 흥미로운 종의 풀 앤드로포곤즈(Andropogons), 또는 수염풀이 전성기를 이룬다. 즉 앤드로포곤즈 펄카터스(Andropogon furcatus) 즉 갈라진 수염풀 또는 자춧빛 손가락 모양의 풀과, 앤드로포곤즈 스코파리우스(Andropogon Scoparius) 즉 자춧빛 숲풀 그리고 앤드로포곤(Andropogon, 지금은 서금(Sorghum)이라 불리는 누탄즈(Nutans), 인디언 풀이 있다. 처음 것은 아주 크고 가느다란 줄기의 풀이고 3에서 7피트 높이다. 꼭대기에서 위쪽으로 빛을 발하는 4개 또는 5개의 보랏빛 손가락 같은 크기의 뽕족한 가지가 나있다. 둘째 것 또한 아주 가느다랗고 일 피트 넓이 2피트 높이의 덩불에서 자라고 종종 약간 휘어진 가지가 있으며 뽕족한 가지에서 꽃이 피려할 때 하얗고 뽕뽕뽕한 털이 보인다. 마르고 모래가 있는 들판과 언덕에 이 철에 많이 있는 풀들이 이 두 종류이다. 아름다운 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두 줄기는 보랏빛 색조를 띠고 올해가 무르익었음을 선언하는 데에 일조를 한다. 아마 나는 이 식물들에 더 동정심이

간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이 식물들을 싫어하고 이들은 불모의 버려진 땅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이들은 익은 포도처럼 고운 색깔을 띠고 있고 봄이 줄 수 없는 무르익은 분위기를 표현한다. 8월의 태양만이 이 줄기와 잎을 빛나게 했었을 수 있다. 농부는 오랫동안 위쪽에서 건초를 위한 풀을 잘랐으며 이 연약한 야생초가 꽃피어 있는 곳으로 짐짓 낫을 드리데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야생초 군락이 있는 벌거벗은 모래공간을 자주 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래 밭 위에 자줏빛 숲풀 덩불사이를 용기 있게 걷는다. 관목 참나무 가를 따라 있는 이 단순한 동시대인들을 알아보고서 기쁨을 느낀다. 풀을 베어 건초를 얻고 말이 끄는 썰레로 건초들을 모으는 생각을 한다. 훌륭한 귀를 가진 시인은 내 낫을 가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 풀들은 내가 구분 짓게 된 거의 최초의 풀들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풀들이 둘러쌓여 있는지를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들을 단순히 풀들이 그 자리에 그냥 서있는 것으로서만 인식했었다. 그 풀줄기의 보랏빛으로 해서 아메리카 자리공 줄기에서처럼 나는 또한 흥분했다.

8월이 끝나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어떤 피난처이며 안전지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는 “그레이트 필즈”(Great Fields)경계에 있는 보랏빛 숲 풀 덩불사이를 살금살금 걸을 수 있다. 내가 오후 내내 걸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보랏빛 손가락 모양의 풀들이 거리 안내판처럼 거기에 서서, 내 사고 속에서 늘 하던 여행보다 더 시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해 준다.

아마 어떤 사람이 성급히 가면서 자신의 머리 높이 만큼 큰 풀을 밟아 망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많은 톤 수의 풀을 잘라서 마구간에 흘뿌리고 여러 해 동안 소 떼를 먹여 살렸다 해서 그 풀에 대해 안다고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풀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할지도 모른다. 소위 가장 소박한 식물 또는 잡초 각각은 우리 자신의 사고 또는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풀은 헛되이 서있는가! 나는 8월 달 동안 그레이트 필즈지역을 대단히 많이 걸어 다녔지만 내가 거기에서 만났었던

그 자줏빛 동료들을 결코 분명히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확실히 그 풀들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풀들을 밟아 버렸었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풀들이 일어나서 나를 축복해주고 있다. 아름다움과 진정한 풍요로움은 항상 이렇게 값싸고 무시되는 것에서 올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은 인간이 피하는 장소에 있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질지도 모르겠다. 농부가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풀들에 대해 당신이 진가를 인정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뭔가를 풀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는가? 전에는 내가 그 풀들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면전에서 풀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전부터 지속되어온 자줏빛 번뜩임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 밖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으며, 오로지 내가 보는 것은 앤드로포곤즈(andropogons)가 무성하고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모래는 8월 태양이 무르익어 가면서 나타난 영향이란 것을 입증해준다. 내 생각에는 모래 쪽으로 흔들리는 가느다란 풀들과 더불어 그 모래는 가을 색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랏빛으로 된 모래! 식물과 지구 기공으로 태양 빛이 흡수돼서 이런 모든 결과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모든 수액과 혈액이 지금은 포도주 빛 색깔이다. 마침내 우리는 보랏빛 바다뿐만 아니라 보랏빛 땅도 지니게 되었다.

밤수염풀, 인디언 풀, 숲풀이 버려진 땅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고, 전자보다 더 귀하고(2에서 4 또는 5피트 높이에 걸쳐있고) 동종류 식물보다 더 보기 좋고 생생한 색깔을 지니고 있어서 인디언의 눈을 사로잡았었음은 당연하다. 그 풀은 갈대모양의 잎사귀위로 올려진 깃발처럼 밝은 자줏빛과 노란빛 꽃이 있는 길고, 좁은 한 면으로 되어 있고 약간 수그러진 꽃차례를 가지고 있다. 이 밝은 빛을 띤 기병들은 큰 군대가 아니라 인디언처럼 흩어진 군대 또는 병사들이 한 줄로 먼 언덕배기까지 나아가 있다. 그들의 이름을 본따서 지은 종족을 대표하면서 아름답고 밝게 들판에 서있으며 대부분 인디언처럼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내가 처음 그 풀을 본 후로 일주일동안 눈을 응시하는 것처럼 풀에 대한 인상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마치 인디언 추장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를 마지막으로 본 것과 같은 느낌이다.



빨간 단풍나무

일반적으로 9월 25일 경에 빨간 단풍나무는 무르익기 시작한다. 큰 단풍나무들은 일주일 동안 눈에 띄게 변하고 있는 중이었고 홀로 서있는 단풍나무들은 지금 불타고 있는 빛을 발하고 있다. 초원을 가로질러 반 마일 떨어진 곳 초록 숲가에 있는 작은 단풍나무 하나를 목격했는데, 여름에 피는 어떤 나무의 꽃보다도 훨씬 더 밝고 눈에 띄는 색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몇 해 가을 동안 이 나무를 관찰했는데 항상 동료 나무들보다 더 일찍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한 나무열매가 다른 나무열매보다 더 일찍 무르익는 것과 같다. 아마 이러한 것이 계절을 특징지우는데 이바지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 나무가 잘려졌다면 나는 애석해 할지도 모른다. 우리 마을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나무 두세 개를 알고 있다. 아마 이 나무는 일찍 무르익는 나무 또는 9월의 나무로서 널리 알려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씨를 무찌처럼 시장에서 광고할지도 모른다.

현재 이 불타오르는 관목들은 주로 초원 가를 따라서 자라고 있다. 나는 언덕 위 여기저기 멀리서도 이 나무들을 알아본다. 모든 주위 다른 나무들이 아직도 완전히 초록빛인 때에 늪지에 있는 자그마한 단풍나무들이 짙은 진홍빛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 늪지 단풍나무들은 진홍빛으로 해서 대단히 밝게 보인다. 가을철에 일찍 들관을 가로질러 한쪽가로 걸어가고 있을 때, 마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듣도 보도 못한 인디언의 즐거운 야영을 하고 있거나 다른 숲속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 당신은 놀랄 것이다.

하나씩 서있는 나무들은 완전히 밝은 주홍빛으로 빛나고 있고 여전히 신선한 초록빛의 다른 나무들 또는 상록수를 배경으로 해서 보았을 때, 전 나무 숲이 미래에 주홍빛으로 단풍들 그런 분위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이 모습이 더 장관을 이룬다. 한 나

무 전체가 익은 주스로 가득 찬 하나의 커다란 주홍빛 과일 같은 모습이며, 특히 당신이 태양 쪽에서 본다면 가장 밑 등 가지에서 가장 높은 곳의 잎사귀까지 모든 잎들이 모두 불타오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자연풍광에서 이보다 두드러지게 아름다운 대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 마일 떨어진데서 본다면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현상이 단 한번만 나타난다면 전설로 후손에게 전해져서 마침내 신화에 속할 것이다.

같은 나무들보다 미리 앞서서 이렇게 무르익는 나무 전체는 유일한 장관을 이루며 때때로 일 주 또는 2주 동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한다. 초록색 옷을 입은 주위의 많은 숲 속 나무를 위해 주홍빛을 고귀하게 유지하는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서 전율했으며,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가던 길을 돌려 반 마일을 그 쪽으로 갔다. 이리해서 나무 한 그루가 초원계곡의 최고로 아름다운 풍광이 되고 주위 숲의 분위기는 이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즉시 생명력이 깃들여 기운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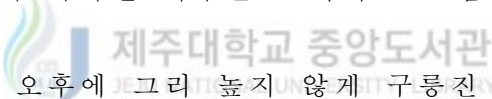
자그마한 단풍나무가 길에서 일 마일 떨어진 외진 계곡 앞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자라고 있었다. 그 나무는 모든 겨울과 여름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단풍나무의 의무를 그 곳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일도 없이, 그렇게 많은 달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단풍나무에 속한 미덕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단풍나무는 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그 나무는 충실하게 수액을 절약해서 방황하는 새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씨를 오래 무르익게 해서 바람에게 전해주고 수천 개의 자그마한 품행이 바른 단풍나무들이 이미 어딘가에서 정착해서 생명을 일궈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아마 만족해하고 있다. 이 단풍나무는 단풍나무왕궁으로부터 상을 받을 만하다. 단풍나무 잎사귀들은 때때로 속삭이듯이 다음과 같이 물어보고 있다. “우리 언제 빨갱게 되요?”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여행의 달인 이 달에 사람들이 바닷가, 산 또는 호수로 서둘러 갈 때 이 겸손한 단풍나무는 아직껏 한치도 움직임이 없이

명성 속으로 여행을 한다. 언덕배기에 주홍빛 기를 세우고 달린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다른 나무들보다 먼저 여름의 일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콘테스트에서 물러난다. 올해의 막판에 가장 부지런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었을 이 나무는 성숙한 빛을 띤 홍조로 해서 태평스런 멀리서 온 여행객에게 발각된다. 그래서 이 나무는 먼지 낀 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용감한 고독 속으로 자신의 생각을 끌어낸다. 그 나무는 모든 미덕과 단풍나무의 아름다움으로 해서 두드러지게 빛난다. 아세 루브럼(Acer rubrum). 우리는 지금 그 제목 또는 붉은 색을 분명히 읽을 수도 있다. 단풍나무의 미덕은 주홍빛이라는 데에 있으며 여기서 주홍빛은 죄가 되지 않는다.

빨간 단풍나무는 우리가 아는 어떤 나무 중에서 가장 강렬한 주홍빛임에도 불구하고 사탕 단풍나무는 가장 많이 찬미의 대상이 되어왔다. “『실바(Sylva)』 37”에서 미소는 빨간 단풍나무의 가을 색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10월 둘째 주쯤에 크고 작은 이 나무들은 많은 다른 나무들이 아직도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아주 밝게 불타오른다.” 발아하는 땅(sprout lands)”에서 그것들은 서로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단풍나무 가운데서 특별한 것은 독특하게 순수한 주홍빛을 띤 것이다. 단풍나무의 강렬한 색깔로 멀리서조차 우리 눈을 매혹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 넓은 빨간 단풍나무 습지는 단풍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모든 나무 중에 분명히 가장 두드러진다. 내가 사는 곳에는 이 나무가 풍부히 많다. 이 단풍나무는 형태, 색깔 둘 다 동시에 변한다. 아주 많은 나무가 단지 노란색이다. 더 많은 것이 주홍빛이고 다른 것들은 흔히 있는 것보다 더 붉은 진홍빛 색깔을 많이 띠는 주홍빛. 여기서 사분의 일 마일 떨어진 곳 소나무로 옷을 입은 언덕 기슭에 소나무와 어루어진 단풍나무 소택, 늪지를 보라. 그래서 나뭇잎들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여러분은 밝은 색깔이 주는 효과를 충분히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색조 가운데 노랗고 주홍빛 및 진홍빛으로 불타는 단풍잎을 보라. 이들은 초록빛과 대조를 이

37) F. A. 미소(Michaux) | 북아메리카 실바] (North American Sylva, 1818)

루고 있다. 어떤 단풍나무는 아직도 초록빛이고 개암나무가시의 가장자리처럼 잎사귀 가만 노랗고 또는 진홍빛으로 나뭇잎맥처럼 양측으로 모든 면으로 규칙적으로 세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더 불규칙한 형태의 다른 단풍나무들은, 내가 머리를 약간 돌렸을 때, 단풍나무의 세속성을 떨치고 나무 줄기를 숨기고 있었으며, 이들은 노랗고 주홍빛 구름처럼 조각 위에 조각처럼 얹혀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바람으로 층이 만들어져서 공기 속에서 만들어진 쌓인 눈 더미처럼 화관 위에 화관이 얹혀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이 가을철에 소택지의 아름다움이 아주 두드러진다. 그래서 흠뻑러진 다른 어떤 나무도 있을 수는 없지만, 이 단풍나무는 단순한 색깔 덩어리로 보여지지 않고 다른 색깔과 색조를 지닌 다른 나무로 보여진다. 나무 꼭대기 외곽 선이 초승달 모양으로 각각 이루어져서 독특한 모습을 띤다. 거기서는 한 나뭇잎이 다른 나뭇잎과 겹쳐져 있다. 어떤 화가도 25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독특한 나무를 그리려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햇살이 밝은 오후에 멀리 높은 지붕 아래 구름진 땅 쪽으로 곧바로 들판을 가로질러 갈 때, 태양을 향해 있는 곳에서 50 로드 떨어져 있는 곳 언덕에서 밝게 빛나는 황갈색 가장자리 바로 위에 나타나는 단풍나무 습지 꼭대기를 보았다. 분명히 10피트 깊이에 20로드 길이의 줄무늬가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주홍, 주황, 노랑, 어떤 꽃 또는 과일 또는 지금까지 칠해진 어떤 색조에 맞먹는 그런 줄무늬였다. 이 그림 같은 풍경의 분명한 앞의 모습 또는 밑쪽 틀을 이루는 언덕 가장자리 밑으로 나아갈 때, 천천히 드러낸 화려한 숲의 깊이는 더해가고, 둘러싼 계곡 전부가 이런 아름다운 색깔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다. 이 숲에 어떤 해악이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마을의 십일조를 걷는 이와 신부들이 아름다운 색깔과 풍요로운 정신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고 이 숲을 찾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이 단풍나무들이 주홍빛으로 타오르고 있는 이 계절에 청교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청교도들은 분명히 당시에 이 숲을 숭배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 아마 이들은 교회당을 지어서 마구간을 울타리 삼았을 것이다.



느릅나무

10월 초 지금 또는 10월 늦게, 느릅나무들은 가을철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며 자태를 뽐낸다. 9월 달 햇살로 달구어진 오븐의 온기를 받은 갈색 빛을 띠는 노란색의 커다란 덩어리가 큰길가에 이어져 있다. 느릅나무 잎사귀들은 완전히 물들었다. 이렇게 무르익은 느릅나무 밑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무르익어서 이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궁금하다. 느릅나무가 길가에 늘어져 있는 우리 마을 거리를 내다보았을 때, 이들 느릅나무를 보고 이 나무 형태와 색깔로 인해 노랗게 익은 곡식단 생각이 났다. 마치 마을이 추수철을 맞은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마을사람들의 사고에서 성숙함과 운치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에 곧바로 떨어지려는 바스락거리는 밝은 노란 나뭇잎 더미 아래서 어떻게 생각 또는 행동의 조야함이나 미숙함이 널리 퍼질 수 있겠는가? 여섯 개의 느릅나무가 집위로 축쳐져 있는 곳에 서있었을 때, 나는 마치 익은 호박껍질 속에 서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내가 약간은 섬유질이 있고 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마치 내가 과육인 것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다. 철지난 오이처럼 영국의 느릅나무가 늦게까지 초록빛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느릅나무의 이른 금빛으로 무르익은 모습과 비교해서 영국느릅나무는 언제 성숙할지 모르는 철모르는 나무다. 거리는 대단한 수확 제를 끝마친 현장이 된다. 가을의 가치만을 위한다면 이 느릅나무로 시작하는 편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몇 마일에 걸쳐서 함께 놓여있는 집들과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진 이 노랗고 커다란 덮개 하늘 또는 파라솔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이들은 마을을 모두 하나로 아담하게 해준다. 느릅나무 잎과 닮은 나뭇잎(Ulmarium)은 동시에 이것은 인간 삶의 온상이다!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고 남몰래 느릅나무 잎사귀들은 자신들의 짐을 벗는가! 잎사귀들이 태양 빛을 받으며 떨어질 때, 조용히 하기를 원할 시는 우리들의 지붕 위와 거리에 잎사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가. 이리해서 마을의 파라솔은 닫히고 치워진다. 곡물창고 또는 곳간마당 속으로 곡식을 싣고 커다란 느릅나무 덮개 밑에서 사라져서 시장사람이 마을로 마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 마르고 성숙한 사고의 껍데기를 벗기기 위하여 거기에 가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외피로부터 분리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슬프다! 예컨대 그것은 주로 껍데기, 사고가 거의 없는 농부의 식사에만 적합한 마른 돼지 옥수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씨뿌릴 때, 그대는 거두어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낙엽

일반적으로 10월 6일 경에 서리 혹은 비가 온 후에 나뭇잎들이 연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뭇잎 수확인 낙엽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대략 16일 경이다. 아마 그 날짜쯤 어느 날 아침은 우리가 보아왔던 것보다 더 심한 서리가 생긴다. 그래서 펌프 밑에 얼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금 아침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소나기처럼 우수수 떨어진다. 이 나뭇잎들은 이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또는 바람이 없을 때조차도 떨어져 바로 위에 있는 나무 크기와 형태로 땅위에 두꺼운 침상 혹은 카페트를 갑자기 만들어낸다. 자그마한 호두나무와 같은 어떤 나무는 잎을 바로 한꺼번에 동시에 떨어뜨린 것같이 보인다. 이는 마치 군인이 신호에 맞춰서 무기를 땅에 내려놓는 것과 같다. 시들었지만 여전히 밝은 노란빛인 히커리 잎사귀들은 놓여있는 땅에서 나오는 타오르는 불빛을 반영하고 있다. 가을이라는 마술 지팡이가 가장 진지하게 처음으로 휘둘러서 사방으로 잎사귀들이 비오듯이 우수수 떨어진다.

축축하고 비가 오는 계절 바로 뒤에 우리는 밤에 얼마나 많은 낙엽이 떨어졌는가를 알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계절의 변화는 바위 단풍나무잎사귀를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거리는 트로피로 두껍게 흩뿌려져 있고 느릅나무 낙엽은 우리 발 밑에 짙은 갈색 포장도로를 형성한다. 두드러지게 따뜻한 인디안 여름 날 또는 날들 뒤에 나뭇잎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보통과 다른 열기와 아마 얼마동안 서리도 비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강열한 열기가 갑자기 나뭇잎을 무르익게 하고 시들게 한다. 바로 그 열기가 복숭아와 다른 과실을 부드럽게 하고 무르익게 하고 그것들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과 같다.

늦은 빨간 단풍나무 잎사귀들은 여전히 밝게 야생사과처럼 노란 땅위에 심홍빛 반점을 찍으면서 땅위에 흩뿌려져 놓여 있다.

특히 비가 오면 단지 하루나 이틀 땅위에 이런 밝은 색깔을 보존 하지만, 방푹 위로 밝은 색깔을 잃고 모두 벌거벗고 연기 빛을 띠며 여기저기 서있는 나무들 옆을 지나간다. 최근에 나무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규칙적인 형태를 만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빨간 단풍나무 잎사귀들은 한쪽 땅위에 놓여있다. 영원히 채색된 그림자처럼 땅위에 평평히 있는 나무를 먼저 보고서는 나뭇잎들은 원래 자신들이 매달렸던 가지를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이 아름다운 나무에서 떨어진 진흙 속 아름다운 낙엽 망토를 펼쳐놓은 곳을 한 여왕이 자랑스럽게 걸을지도 모르겠다. 마차가 위에 있는 나뭇잎 그림자 또는 반사된 것과 같은 모습을 띤 낙엽 위로 구르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마부들은 낙엽 그림자에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별로 주의를 안하고 지나간다.

월귤나무와 다른 관목 및 나무에 있는 새들 등지는 시든 나뭇잎으로 이미 채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대단히 많은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으며 다람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떨어지는 견과를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깨끗하고 신선한 물질을 만지고 있다는 즐거움만으로도, 소년들은 거리에서 견과들을 긁어모으고 있다. 몇몇 아이들은 거리를 아주 깨끗이 치웠다. 이들은 거리에 서서 다음 바람이 불어 새로운 열매 트로피로 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높은 낙엽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고 석송 속의 식물 (*Lycopodium lucidulum*)은 그들 가운데서 갑자기 더 푸르게 보였다. 무성한 숲에서 나뭇잎은 3에서 4로드 길이의 웅덩이를 반쯤 덮는다. 그 다음날 내가 잘 알고 있는 샘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샘이 말라버리지 않았나 의심했다. 왜냐하면 이 샘은 새로 떨어진 낙엽으로 완전히 숨겨져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나뭇잎을 옆으로 쓸어서 샘이 드러나게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를 휘둘러 새 샘을 만든 것 같았다. 늪 가 주위의 젖은 땅은 나뭇잎과 더불어 말라보였다. 한 늪지에서 나는 측량하고 있었는데, 나는 가로 대에서 나뭇잎이 있는 물가를 밟을 생각을 해서 밟았더니만 1피트 깊이 이상으로 물 속에 들어가 버렸다.

16일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절정인 때 바로 뒷날에 강에 갔을

때, 내 배가 모두 단풍잎으로 덮여 있었다. 버드나무 밑에 정박시켰는데 바닥과 의자 모두가 버드나무 황금빛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발 밑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짐을 신고서 항해를 시작했다. 내가 이 나뭇잎을 치운다면 내일 다시 가득 덮일 것이다. 나는 이 나뭇잎들을 쓸어내야 할 쓰레기로 보지 않으며 내배 바닥에 적합한 짚 또는 매트로서 받아들인다. 숲이 우거진 아사벳(Assabet)입구에 다다랐을 때, 많은 나뭇잎이 표면에 떠다니고 있었고 공간을 따라 지그재그로 가려하며 이들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물가에서 약간 더 멀리 위쪽에 낙엽들은 거품보다 더 두꺼웠다. 1로드 넓이로 물을 숨기며 오리나무, 어린 버섯관목 아직껏 완전히 가볍고 마르고 팽팽한 섬유질이 있는 단풍나무들 밑과 가운데서 1로드 넓이로 몸을 숨기고 있다. 아침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흔들고 멈추게 하는 바위가 있는 만곡부에 나뭇잎들은 때때로 강을 가로질러서 넓고 무성한 초승달 모양을 형성한다. 내가 뱃머리를 그 쪽으로 돌렸을 때, 나뭇잎을 치는 과도로 해서 이 마른 물질에서 나는 유쾌한 바스락거림은 서로서로에게 올라타게끔 기울여지게 하고 있다. 나뭇잎들이 과동을 일으켜서 나뭇잎 밑에 물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물가에 있는 나무 거북이의 모든 동작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인해 모두 드러나 버렸다. 중간 수로에서조차도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려 다니는 것을 들었다. 위쪽 더 높은 곳에 나뭇잎들은 강이 만드는 큰 소용돌이 속에 둥글게 둥글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리닝 험록(Leaning Hemlocks)”에 있는 그것처럼 그 곳은 깊고 조수가 강둑까지 마모시키고 있다.

아마 그런 날 오후에 물이 완전히 고요하고 깨끗이 대상을 반사하고 있을 때, 나는 주 개울로 고요히 노저어 간다. 아사벳에 이르러 조용한 작은 만에 도착해서는 기대치 않게 마치 동료 여행객이 있는 것처럼 무수한 나뭇잎에 내가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나뭇잎들은 나 자신과 꼭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목적이 없는 것 같았다. 이 완만한 강의 만에서 각각의 나뭇잎들이 태양이 솟아오르며 만들어져서 모든 곳으로 굽이치고 있다. 이

들 가운데로 노저어 가면서 이 대단한 무리로 흩어져 있는 나뭇잎 함대들을 보라. 각각은 딱딱한 가문비나무 식물의 굵은 재목에 기운을 분뚫우고 있고, 숨어있는 모든 형태의 보트처럼, 나머지 가운데 아마 사론의 배가, 몇 개는 고귀한 뱃머리와 선미루 갑판이 있고 고대의 장엄한 배처럼, 굵은 조수 속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면서 커다란 함대처럼. 무성하고 뻑뻑한 중국도시와 같은 배들 이 배들과 함께 당신은 커다란 뉴욕 또는 칸톤 상가에 들어가는데 합류한다. 그 곳으로 우리 모두 함께 점차 접근하고 있다. 얼마나 부드럽게 각각은 물위에 놓여졌는가! 아직껏 어떤 폭력도 그들에게 사용되지 않았다. 출발할 때, 아마 하지만 가슴의 두근거림은 있었다. 아울러 알록달록한 오리들 또는 화려한 숲 오리가 아름다운 낙엽 사이를 향해하며 떠다니기 위해 자주 이곳에 들린다. 이들이 내는 소리는 여전히 더 고귀한 표본이 아닌가!

우리는 건강에 아주 좋은 약초 음료를 지금 늪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부식하는 잎사귀에는 강한 약효성분과 풍부한 향기가 얼마나 많은가! 신선한 마른 약초와 나뭇잎에 떨어지는 비, 떨어진 나뭇잎이 있는 작은 못과 도랑을 깨끗이 채워주는 비로 해서 이 나뭇잎들은 곧 차로 변할 것이다. 모든 자연이 한담할 때, 충분히 마시기에 좋은 정도의 힘이 담긴 초록, 검정, 갈색 및 노란 차들. 약초 힘이 우려내지기 전에, 우리가 차를 마시든 안마시든 간에, 이 낙엽들은 위대한 자연의 동판 위에서 말려져서 동양의 차 명성을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양하고 순수하고 고운 색조를 이루고 있다.

모든 종 중에 이 나뭇잎들은 참나무, 단풍나무, 밤나무, 자작나무로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가! 하지만 자연은 이들 나뭇잎으로 해서 어지럽혀지지 않는다. 자연은 완전한 농업전문가이다. 자연은 그것 모두를 비축한다.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매년 이렇게 땅에서 나는지를 생각해보라! 단순히 곡물 또는 씨 이상으로 이것은 올해의 커다란 수확물이다. 나무들은 자연에서 취했던 것을 이자까지 갚으며 땅에 지금 되돌리고 있는 중이다. 나무들은 싼값으로 되돌리고 있는 중이다. 내가 황과 마차 비용에 대해 나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 저 사람과 흥정하는 동안 이렇게 해서 자연은 비료를 아름다운 방식으로 얻는다. 나뭇잎이 썩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층 더 풍요로워진다. 나는 단지 영국 풀 또는 옥수수보다도 이 수확물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의 옥수수 밭과 숲을 위한 새로운 땅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땅이 있어서 지구는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농장은 기름지게 된다.

아름다운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떤 수확도 이 낙엽과 비교될 수가 없다. 곡류의 순수한 노란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색깔 가장 밝은 파란색도 예외는 아니다. 초기에 홍조를 띠는 단풍나무, 자신의 죄를 주홍빛으로 타오르게 하는 윗나무 속의 유독한 관목, 뽕나무 회색, 포플러의 풍요로운 크롬 노란색, 찬란하게 빛나는 빨간 월굴나무, 이 나무로 언덕 등성이는 양의 등과 같이 채색된다. 서리가 내리고, 순환하면서 되풀이되는 날의 가장 미약한 숨결 또는 지구 축의 진동과 더불어 이 나뭇잎들은 어떻게 쏟아져 내리는지를 보라. 땅은 이 나뭇잎들과 더불어 다채로운 색깔을 드러낸다. 하지만 나뭇잎들은 여전히 흙 속에 이들이 생겨난 숲에 살아있으며 이 나뭇잎들이 흙을 비옥하고 풍요롭게 한다. 이들은 다가오는 미래에 올라가기 위하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몸을 낮추며, 미묘한 화학작용에 의해서 나무속 수액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리해서 묘목 최초의 결실이 떨어지고 마침내 변형되어 후에 이 나무가 숲의 제왕이 됐을 때, 왕관을 장식할 수도 있다.

신선하고 바삭바삭하며 바스락거리는 나무 침상 위를 걸으니 기분이 좋다. 나뭇잎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무덤으로 돌아가는가! 얼마나 부드럽게 자신들을 드러놓고 흙으로 돌아가는가! 천 개의 색조로 물들여져서 우리 침상을 활기 있고 알맞게 만들고서 나뭇잎들은 가볍고 쾌활하게 마지막 휴식처로 떠난다. 나뭇잎들은 잡초가 나는 것을 막아주며 즐겁게 흙 위에 떨어진다. 장소를 고르고 땅을 선택하고서 쇠 울타리도 신청하지 않고 나뭇잎에 대해 모든 숲에 속삭이면서. 어떤 나뭇잎들은 인간의 시체가 썩고 있는 바로 위를 선택하고서 도중에 이들과 만난다. 무덤 속에서 조용히 쉬기 전에 얼마나 많이 나부꼈는가? 그렇게 고귀하게 날아올랐던

그들은 얼마나 만족스럽게 다시 먼지로 돌아와서 낮게 누워서, 나무 밑에서 누워 썩기로 했는가!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새 세대에게 양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높이 날도록 하게 해주는가! 나뭇잎들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인간도 머리카락 손톱을 치장하듯이 우아하고 성숙되게 인간의 불멸성에 대해 자랑해온 신념을 견지하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봄날 같이 따뜻한 인디안 섬머의 고요함을 지니고 자신들의 육체를 떨구어낼 때가 적어도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 전 지구는 즐거이 걸어다닐 수 있는 묘지가 된다. 나는 나뭇잎 묘지에서 돌아다니고 나뭇잎에 대해 명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곳에는 거짓이나 헛된 비문도 없다. 마운트 오번³⁸⁾(Mount Auburn) 묘지에 어떤 무덤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어떠냐? 너가 묻힐 밋자리는 이 커다란 묘지 어딘가에 확실히 있다. 이곳은 예부터 신성시되어 온 곳이다. 어떤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경매에 귀기울일 필요도 없다. 여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 부처꽃이 필 것이고 월굴나무열매 새가 당신 뼈 위에서 노래할 것이다. 숲에 사는 사람과 사냥꾼이 관리인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 무덤경계를 아주 많이 밟아 줄 것이다. 나뭇잎 묘지에서 걸어다니자. 이곳은 진실로 그린우드 묘지이다.

38) 매사추세트 캠임브리지에 있는 공동묘지, 이곳에는 많은 문인들과 이름있는 사람들이 묻혀있다. 그린우드 묘지는 소로우가 만든 말이다.

사탕 단풍나무

하지만 한해의 찬란함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 개의 나뭇잎이 여름을 이루어내지 않은 것처럼 하나의 낙엽이 가을을 이루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찍이 10월 15일 경에 우리 마을 거리에 있는 가장 작은 사탕나무가 마을 거리에 있는 어떤 다른 나무보다도 더 많이 장엄한 광경을 보여준다. 내가 주요 도로를 내려다 봤을 때 이 나무는 마을 집들 앞에 처져 있는 채색된 스크린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잎들이 초록색이다.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10월 17일경에 이때쯤이면 거의 모든 빨간 단풍나무와 하얀 단풍나무들이 벌거벗을 때에, 큰 사탕 단풍나무는 화려함을 자랑하며 노랑 빨강 색으로 불타오르며 뜻밖의 밝고 섬세한 색조를 보여준다. 반쪽은 짙은 불타는 빨간색이고 다른 쪽은 초록색의 대조로 해서 이들은 두드러진다. 이들은 노출된 표면 위에 붉은 색보다도 더 짙은 주홍빛 붉은 색을 띠는 노란색이 풍부한 무성한 낙엽 덩어리가 된다. 이들은 지금 거리에서 가장 밝은 나무이다.

우리 공원에 있는 큰 사탕 단풍나무들은 특히 아름답다. 지금 주요한 색깔은 측면에 주홍빛을 띠면서 황금빛 노란색보다 섬세하지만 더 따뜻한 색깔이다. 하지만 해가 지기 바로 전에 공원 동쪽에 서서 서쪽 빛이 이들을 비출 때, 가까이 있는 느릅나무의 희미한 레몬빛 노란색과 비교했을 때, 밝은 주홍색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더라도 잎사귀의 노란색조차도 주홍빛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이 잎사귀들은 노란색과 주홍색으로 된 아주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타원형 덩어리들이다. 늦가을에 봄날같은 햇볕으로 인한 따뜻함이 이 모든 잎사귀 속에 스며든 것 같다. 줄기 옆 가장 낮은 곳 안쪽의 잎사귀들은 보통과 같이 가장 섬세한 노랑 빛과 초록빛을 띤다. 이는 집 안에서 키워진 젊은이의 안색과 같다. 오늘은 공원에서 경매가 있는 날이다. 하지만 경매장소의 빨간 깃발은 이 불타오르는 단풍 색깔과 섞여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

다.

이 마을 조상들은 이러한 대단한 성공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당시에 이 설탕나무는 꼭대기 끝이 갈라진 사탕 단풍나무라 불리는 곧은 나무막대 같은 것을 멀리서 이 나라에 수입했었다. 내가 기억한 바에 따르면 이 나무들을 심기 시작한 후에 이웃에 사는 상인 점원이 익살스럽게 사탕 단풍나무 주위에 콩을 심었다. 당시에 시시덕거리며 콩 막대기라 불렀던 것들이 오늘날은 우리 마을에서 주목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되었다. 비록 도시 행정위원 중 한 분이 이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을 때 감기에 걸려 죽었다해도, 이 나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10월 달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색을 선사했기 때문이라면 비용이 든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 이 나무들이 가을에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는 한, 봄에 설탕을 생산해나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 집에서 소유한 부는 소수의 유산이 될지도 모르지만 공유지에서는 부는 똑같이 분배된다.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이 황금빛 추수에 노출 될 수 있다.

비록 나무학회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의심스럽지만, 분명히 나무들은 10월의 장려함을 예상하며 우리 거리에 심어져야만 한다. 이런 단풍나무 밑에서 키워진 아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경치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으나? 수 백명의 사람들이 이 색깔을 꾸준히 흡수해서 이런 나무들에 의해 가장 게으른 사람조차도 밖으로 나간 순간 이런 풍경을 접하고 교육적 효과를 얻는다. 현재 게으름뱅이 또는 부지런한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학교에서는 색깔을 진정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런 밝은 색깔 대신에 색에 대한 것은 약제사의 가게와 도회지 진열장 안에 있다. 우리 마을 거리에 더 이상의 빨간 단풍나무와 호두나무가 없다는 것은 또한 아쉬운 일이다. 우리가 쓰는 그림물감 상자는 아주 불완전하게 채워졌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그림 물감상자를 제공하는 대신에 혹은 제공하는 것 외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색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더 큰 혜택이 있는데 어디서 이들은 색깔을 공부할 것인가! 어떤 예술학교가 이런 아름다

운 자연 색과 경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종류의 화가들, 옷감과 종이 제조자들, 종이 염색가들 및 무수한 다른 이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심미안이 이 가을색조에 의해 더 나아지도록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를 생각해보라. 문방구상에 파는 봉투는 매우 다양한 색깔일 수가 있지만 단 한 그루의 나무에 있는 잎사귀들의 다채로움만큼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특별한 색채의 다른 색조 또는 빛깔의 뉘앙스를 원한다면 나무와 숲 속에서 또는 나무와 숲이 없는 곳에서 멀리 보기만 하면 된다. 이 잎사귀들을 염색공장에서처럼 한 번 염색하는데 여러 번 담그지 않는다. 이들은 무한히 다양한 정도로 힘 있는 빛으로 염색되어 있다가 거기서 마르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단히 많은 색채 이름을 예를 들면 나폴리노랑, 프리시안 감청, 시엔나토색(적갈색), 벤트엄버(황갈색), 깬보지(치자색)와 같이 모호한 외국의 지방색이 나는 이름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하는가? 티니안 퍼플(자줏빛 나는 진홍색 물감)은 이때쯤 확실히 사라져야만 했다. 우리의 색채 명을 비교적 사소한 상업기사 즉 초콜릿, 레몬, 커피, 계피, 붉은 포도주와 같은 상업품목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기를 계속할 것인가? (호두나무를 레몬에 또는 레몬을 호두나무에 비유할 것인가?) 또는 우리 색채이름을 어느 누구도 거의 본적이 없는 금속과 금속산화물에서 따온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보는 어떤 대상의 색깔을 우리 이웃에게 설명할 때, 우리 주위 이웃에 있는 어떤 자연대상과 관계된 색깔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가 결코 본적이 없는 약제상에서나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색인, 행성 다른 편에서 가져온 약간의 흙에서 나온 색깔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언급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발 밑에 우리가 딛고 있는 흙이 없는가? 아니면 아!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없는가? 아니면 최후의 색은 모두 균청색인가? 우리는 사파이어, 자수정, 에메랄드, 루비, 호박색,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들 대부분이 헛되이 이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귀중한 말들은 캐비닛 보관자, 골동품 대가, 명예의 시녀들에게, 나뭇가(인

도에서 돌아간 부호 영국인), 회교도의 왕비, 파키스탄의 초브다(Chobadars)에게 이런 비싼 이름들을 남겨두라. 미국과 미국의 가을 숲이 발견된 이래로 색채 명을 매길 때 우리 가을 단풍잎들이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에 필적되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참말로 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목이름이 우리의 유명한 채색 학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름에 대한 지식과 색깔의 특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단풍들이 자아내는데서 느껴지는 기쁨과 상쾌함이다. 거리에 두루이 화려한 가을 단풍을 자랑하는 나무들로 해서 매년 열리는 축제와 휴일 또는 그러한 축제가 변함없이 열리는 한 주일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가을날들을 보낼 때 돈도 별로 안 들고 해롭지도 않은 순수한 축제일을 즐길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위원회 또는 의전관의 도움 없이 경축하는 축제일을 만끽할 것이다. 그리고 도박꾼도 럽주상인도 어슬렁거리지 않으며 축제장 안전과 평화를 위해 어떤 특별한 경찰도 필요치 않은 안전허가를 받은 그러한 축제 현장이 된다. 거리에 단풍나무가 없는 뉴잉글랜드 마을의 10월은 정말로 틀림없이 가련할 것이다. 이 10월 축제에는 축포를 터뜨릴 화약도 벨소리를 위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나무가 수천 개의 밝은 깃발이 물결치는 생동하는 자유의 나무가 된다.

매해 열리는 가축품평회, 가을 훈련 그리고 아마 콘월리스³⁹⁾(cornwallis), 9월 범정 및 기타 등등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자연은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계곡과 언덕배기에서 매년 10월에 박람회 를 연다. 최근에 빨간 단풍나무 높이 빨강게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는 나무들이 가장 현혹시키는 색조도된 옷을 입고 있었다. 이 풍경도 밑에 천 개의 미칠 듯이 기뻐할 수 있는 종족인 짐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느냐? 또는 우화화한 목신, 반인반수 및 숲의 요정조차도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다만 피곤한 나무꾼의 모임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온 땅

39) 1781년 10월 19일 요크타운에서 콘월리스 경의 항복을 축하하기 위한 군인들 행군.

주인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훨씬 더 일찍 우리가 미립자의 가을 공기 속에서 강을 저어 나갈 때, 버팀목의 흔들림, 개울의 변곡이는 표면 밑에서 계속되는 새로운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서둘렀다. 각 편에 있는 일련의 노랗게 물드는 버드나무와 봉우리 맺은 관목 숲은 일련의 초소 같지 않느냐? 그리고 그 초소 밑에는 똑 같이 노란색을 띤 물에 사는 에그 팝⁴⁰⁾(egg-pop)이 거품을 만들고 있다. 모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정신이 자연의 정신만큼 높이 올라야 하는 것을 암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신들의 깃발을 밖으로 내밀어 기쁨과 환희와 같은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인간 삶을 중단시켜야만 할 것을 이 모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

매해 열리는 군대훈련 또는 검역 스카프와 깃발로 축하하는 어떤 것도 매해 10월의 장엄함에 비하면 백 분의 일도 우리 마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나무를 심어 세우기만 하면 되고 자연은 채색 회장을 드리울 것이다. 모든 자연 국가들의 깃발과 이 깃발의 신호를 식물학자는 거의 해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느릅나무 개선문 밑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웃나라와 꼭 같은지 안 그런지 자연이 그 축제일을 정하도록 맡겨두라. 만약 목사들이 선언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목사가 선언문을 읽도록 허락하라. 아메리카 담쟁이덩굴 깃발은 얼마나 찬란한 휘장인지를 보아라! 당신이 생각건대 어떤 애국심이 있는 상인이 이 아름다운 가을 단풍 쇼의 이 부분에 무슨 공헌을 했겠는가? 지금 어떤 집의 전체면을 덮는 이 담쟁이덩굴보다 더 멋진 지붕과 페인트는 없다. 결코 마르지 않은 담쟁이가 이 덩굴과 비교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덩굴이 영국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 단풍나무, 호두나무와 주홍 참나무를 아주 많이 보존합시다. 맹렬히 탕탕 쏘아대라? 포탑에 있는 더러운 두루마리 기포가 마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색깔이 될 것인가? 계절을 특징지어주는 이 나무들이 없다면 마을은 완전하

40) 일종의 달걀술을 위한 뉴잉글랜드 아메리칸주의

지가 앓을 것이다. 이 나무들은 마을에 있는 시계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나무들이 없는 마을이 잘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런 마을은 나사가 험령하게 된 마을이며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마을이다. 봄에는 버드나무, 여름에는 느릅나무, 가을에는 단풍나무와 호두나무, 층층나무, 겨울에는 상록수와 모든 계절에 참나무를 지니도록 하자. 집에 있는 화랑은 거리에 있는 화랑과 같지 않은가? 그가 이 길로 가려고 하든 안하든지간에 모든 장사꾼들이 이 길을 통해서 마차를 몰고 갈 것이다. 물론 우리 마을 주요도로에 있는 느릅나무 밑에서 해질 녘의 서쪽 하늘 경치만큼이나 우리에게 대단히 가치 있는 그림 같은 화랑이 이 나라에는 없다. 저녁노을 풍경은 단풍 뒤에서 배경으로 매일 채색되는 그림 액자틀 역할을 한다. 우리의 가장 크고 3마일 거리만큼이나 큰 느릅나무 가로수 길은 어떤 훌륭한 장소로 인도할 것 같은 것이다. 비록 C-만이 그 길의 끝에 있기는 하지만. 마을에는 우울함과 미신을 쫓아버릴 수 있는 이렇게 해가 없이 순수하고 밝고 유쾌한 경치가 있을 필요가 있다. 나에게 두 마을을 보여주라, 한 마을에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이 나무들은 10월에 모든 영광스러움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다른 마을은 단순히 사소하고 나무가 없는 황무지에 자살을 위한 한 두개의 나무가 있는 마을인 경우 확실히 뒷마을에는 가장 많이 굶어죽고 괴팍한 종교인과 가장 절망적인 술주정꾼이 살게 될 것이다. 모든 빨래통과 우유통 및 묘비가 노출될 것이다. 주민들은 바위 가운데 있는 사막의 아랍사람들처럼 곳간과 집 뒤로 불현듯 사라질 것이고 나는 그들 손에 있는 창을 보려고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들은 가장 삭막하고 절망적인 이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과 세상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으며, 자신들이 분명히 잘못돼 있다는 것 같은 것들이다. 아마 그들은 서로에게 무미건조하게 이어진 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그것을 정신적 의사소통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자신을 단풍나무에 한정시킨다면, 우리가 단풍나무를 심는데 들이는 것만큼이나 그것들을 보호하는데 많은 고통을 가진들 어떠리? 우리말들을 다알리아 줄기에 어리석게 묶지는 말

라.

교회당 앞에 이렇게 완전히 살아있는 명물을 구축한 조상들은 무슨 의미를 두었겠는가. 어떤 보수도 다시 페인트칠할 필요도 없는 이런 명물을 구축한 선조들은 무슨 의미를 두었겠는가. 이렇게 심어진 나무 구축물은 스스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누가 돌보아 않아도 스스로 생존해나간다. 확실히 이들은

“이 나무들은 애뜻하고 성의껏 조성되어;
신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이 들을 심었으며,
의식 있는 나무는 아름답게 자랐다.

진실로 이 단풍나무들은 비용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보는 목사들이다. 영원히 한곳에 정착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반세기의 삶을 보여준다. 세기, 아! 한 세기 반 설교. 끊임없이 증가하는 열정과 영향으로 많은 인간세대에게 도움이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것은 이들이 노쇠함에 따라 적절한 동료를 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주홍참나무

주홍 참나무는 잎사귀 형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식물 종으로, 이 참나무 잎사귀 윤곽의 풍요롭고 대단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다른 참나무를 능가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나는 참나무 열두 종을 익히 알고 있고 다른 참나무 윤곽을 그린 것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이 나무 밑에 서서 잎사귀들이 하늘 쪽을 향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졌는지 보라. 말하자면 몇 개의 날카로운 꼭지점 만이 주맥에서 뻗어 나와 있다. 이들은 2중, 3중, 4중의 십자가처럼 보인다. 이들은 깊이가 덜한 가리비 모양으로 된 참나무 잎사귀보다 훨씬 더 영묘하다. 이 참나무 잎들은 대단히 잎이 적은 땅을 지니고 있어서 빛 속으로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우리 시야를 거의 가리지 않는다. 아주 어린 나무 잎사귀들은 다른 종의 완전히 성장한 참나무 잎처럼 외관에 있어서 더 완전하고 단순하며 덩어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어린 나뭇잎들은 오래된 나무 위에 높이 솟아올라서 잎이 무성한 문제를 해결했다. 점점 더 높이가 올라지고 점점 더 많이 숭고해지면서 세속성을 멀리하고 매년 빛과 더 친숙하려 하면서, 주홍 참나무 잎사귀들은 마침내 세속적 성질은 최소로 가능한 양만 지닌 채 천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전파하고 이 힘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하늘에서 나뭇잎들은 빛과 더불어 팔장끼고 춤추고 있다. 이들은 천상의 홀에서 파트너와 잘 어울리며 환상적으로 경쾌하게 춤추고 있다. 나뭇잎들은 빛과 대단히 친밀하게 섞여지고 있다. 가느다랗고 번쩍거리는 표면을 지니고서 이 둘이 조화롭게 춤추는 것을 보고서 어느 것이 잎이고 어느 것이 빛인지 거의 분간할 수가 없다. 서풍이 이들을 흔들지 않을 때는 이들은 기껏해야 숲 창문에 풍요로운 창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한 달 뒤에 이들 잎사귀들이 숲속 땅을 두껍게 뒤덮고 내 발 밑에서 잎사귀 위에 쌓이고 쌓인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다시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했다. 당시 이들 낙엽들은 위는 갈색이고 밑

은 보라색이었다. 잎사귀들의 좁은 둥근 돌출부와 중간까지 거의 미치는 뚜렷하고 깊은 조개모양으로 해서 마치 대단히 많은 것이 삭감되었던 것처럼 나뭇잎 재료가 값이 나가지 않음에 틀림없고, 이들을 만들 때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또는 나뭇잎들이 찍어내는 본으로 잘려진 것의 나머진 것 같다. 정말로 나뭇잎들이 차근차근 쌓여 놓여 있을 때 이들은 주석 깡통 부스러기들 더미를 생각나게 한다.

낙엽 하나를 집에 들고 와서 난롯가에서 한가한 시간에 자세하게 관찰해 보라. 이 나뭇잎은 옥스퍼드 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바스크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설형문자에서도 아니며 로제 타석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조각 가능한 돌이 된다면 언젠가 조각으로 복사될 운명이 있는 형태의 나뭇잎이다. 얼마나 야생적이고 기쁨을 주는 윤곽이며 우아한 곡선과 각이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의 눈은 잎이 아닌 것과 잎인 것에서 똑같이 즐겁게 휴식을 취한다. 넓고 자유롭고 개방된 우묵한 곳과 길고 예리하고 뾰뾰이 털이 난 둥근 돌출부에서 꼭 같이 휴식을 취한다. 만약 잎사귀의 끝점을 연결한다면 단순한 타원형 윤곽 안에 끝점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 잎사귀는 여섯 개의 깊은 조개 모양의 것을 지니고 응시자의 눈과 생각이 조개 모양의 것 속에 에워싼 그것보다도 얼마나 훨씬 더 풍요로운가! 만약에 내가 그림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이 잎사귀를 본 따서 그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확실히 우아하게 그리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

나뭇잎들을 물로 간주했을 때, 이 나뭇잎은 호수와 같다. 이 호수는 여섯 개의 넓고 둥근 돌기가 있어서 이 돌기는 각 면에서 반 썩 중앙까지 뻗어 있다. 한 편 물이 있는 만은 내륙 안쪽으로 멀리 뻗어 있어 날카로운 강어귀 같다. 강어귀 선두 각각에 몇 개의 작은 개울이 흘러 들어가서 거의 잎이 많은 군도와 같다.

하지만 이 잎사귀는 땅을 자주 암시한다. 디오니서스(Dionysius)와 플리니(Pliny)가 모리아(Morea)의 형태를 동양의 플라타너스 잎의 그것에 비유한 것처럼, 그래서 이 잎사귀는 나로

하여금 대양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야생 섬을 생각나게 한다. 이 섬의 광범위한 해안, 평탄한 해안을 낀 엇갈려 나타나는 둥근 만과 끝이 날카롭고 바위투성이의 곳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 곳을 특징지운다. 그래서 마침내 문명의 중심이 되도록 운명지어진다. 항해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곳은 훨씬 움푹들어간 바닷가이다. 그곳은 사실 천상에 있는 바다의 해안가가 아닌가? 이 해안에 바람에 밀려드는 파도가 부딪힌다. 이 나뭇잎을 보자마자 비록 우리는 바이킹 해적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선원이 된다. 휴식과 모험정신에 대한 우리 사랑이 만족된다. 그냥 무심코 응시할 때라도 만약 우리가 그 날카로운 곳을 두 배로 하는데 성공한다면, 넓은 만에서 우리는 깊고 평탄하고 안전한 천상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둥그스름한 갑을 지닌 하얀 참나무 잎과는 얼마나 다른가! 이 갑에는 어떤 등대도 있을 필요가 없다! 읽혀질 수 있는 것은 오랜 시민 역사를 지닌 영국이다. 이것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새로 발견된 섬 또는 셀레베스섬이다. 우리는 거기로서 추장이 될까요?

10월 26일 경에 커다란 주홍 참나무는 절정에 이른다. 하지만 이때 다른 참나무들은 보통 시든다. 참나무는 과거 일주일 동안 불을 피우고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불길의 확산을 막고 있다. 토착 낙엽수 가운데 이 나무만이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다. (말채나무는 예외로 여섯 개의 말채나무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 이들은 단지 커다란 관목들이다.) 두 개의 사시나무 포플러와 사탕단풍나무는 현재 절정에 가깝지만 잎사귀들의 더 많은 부분이 떨어졌다. 상록수에 대해서는 리기다 소나무만이 여전히 보통 밝은 빛을 띠고 있다.

이런 현상에 완전히 몰두하지는 않더라도 널리 퍼져있는 주홍참나무의 늦은 갑은 있지만 생각지 않은 장려함을 감상하려면 특별히 주의를 해야한다.

나는 자그마한 나무와 관목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작은 나무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지금은 시들었다. 내가 언급하는 것은 큰 나무에 관한 것이다. 가장 다채롭고 기억

할만한 어떤 색들이 아직 타오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암울하고 색깔 없는 11월이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버린다.

완전하고 원기 왕성한 이 약 40피트 높이 나무는 넓게 뿔린 목장에 서서 12일경에 아주 반짝이는 초록빛을 띠고 지금 26일에 완전히 밝고 짙은 주홍색으로 변한다. 당신과 태양사이에 서서 모든 잎들이 마치 주홍 물감 속에 담겨진 것처럼 단풍이 든다. 전체 나무는 색깔뿐만 아니라 형태도 하트 모양과 같다. 이러한 것을 보려고 기다릴 필요가 과연 없겠는가? 십일 전만 하더라도 이 차가운 초록빛 나무가 이와 같은 색깔을 나타내리라고는 생각을 거의 못했을 것이다. 이 나뭇잎들은 아직도 단단히 붙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뭇잎들은 이 나무 주위에 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나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저는 맨 나중에 붉은 빛을 띠지만 그 어느 나무보다도 더 깊이 있는 붉은 빛을 띵니다. 저는 빨간 코트를 입고 제일 나중에 가고 있습니다. 참나무에만 유일한 주홍 단풍잎은 접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액이 생기 있게 흐르고 있고 봄에 단풍나무에서 수액이 흐르듯이 심지어는 11월 늦게까지 이 나무에서 수액이 아주 빨리 흐를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다른 참나무가 시든 때에 이들의 밝은 색조는 분명히 이 수액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생기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칼로 수액을 받아서 먹어보았을 때 알았듯이, 이것은 괜찮은 떫고 도토리 맛과 같은 강한 참나무 와인 맛을 지니고 있다.

사분의 일 마일 넓게 퍼진 이 산림지대 계곡을 가로 질러서서 보았을 때, 이 주홍 참나무가 얼마나 풍요롭게 소나무에 둘러 쌓여 있는가. 이 밝은 빨간 가지들은 밀접하게 서로가 섞여져 있다. 이들은 그곳에서 완전한 효과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나무 가지들은 빨간 꽃에 초록 꽃받침 역할을 한다. 또는 우리가 숲 속에서 길을 따라 걸어 갈 때, 길가 앞쪽을 비추는 태양은 참나무의 빨간 텐트를 밝게 비추며 각 쪽에 소나무 초록 액체와 섞여져서 아주 장엄한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다. 정말로 비교할 상록수가 없다면

가을 색조는 상당부분 그 효과를 잃어버릴 것이다.

주홍 참나무는 늦은 10월 날들의 맑은 하늘과 산뜻함을 필요로 한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참나무 색깔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태양이 구름 뒤에 가려진다면 참나무 잎사귀들은 상당히 불분명해 버린다. 내가 우리 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언덕에 앉아있을 때, 지금 태양은 서서히 낮게 지고 있으며, 내가 앉아 있는데서 동남쪽에 있는 링컨 마을은 변함없이 차분한 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숲에 고루 퍼져있는 주홍참나무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찬란한 밝은 빛을 이 나뭇잎에서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수평선 멀리까지 이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모든 나무는 지금 빨간색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몇몇 커다란 참나무들은 옆 마을에 있는 숲 위로 수많은 섬세한 꽃잎을 지닌 커다란 장미처럼 빨간 등을 높이 들어올리고 있다. 수평선을 직면해서 동쪽 과인 힐에 하얀 소나무 작으마한 숲에 있는 몇몇 더 가느다란 참나무들은 숲가에 있는 소나무와 번갈아 가며, 빨간 코트로 이 소나무를 밀어 제치면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냥꾼 중에 빨간색 옷을 입은 군인처럼 보인다. 이번에는 또한 링컨 초록색이다. 태양이 낮게 질 때까지 숲이라는 군대에 그렇게 많은 빨간 코트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의 색깔은 강하게 타오르는 빨간색이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 쪽으로 매번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뭇잎의 농도가 퇴색될 것이다. 나뭇잎 사이에 잠복해 있는 음영은 이렇게 멀리서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붉은 색이다. 이 단풍잎들이 반사한 핵심 색조는 멀리 이 쪽 대기 공기 중에 머물러 있다. 말하자면 이런 모든 나무는 빨간 색중에서 핵심적인 색이 되고 거기서 지는 해와 더불어 그런 빨간색이 많아지며 불타오른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여분의 덤으로 주어진 불이다. 당신 눈에는 도중에 태양에서 힘을 모아서 어느 정도 여분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 처음 시작에는 불을 붙이기 위해, 발화물질을 위해 비교적 침침한 빨간 잎사귀만 있다가 강한 주홍 또는 빨간 안개 또는 불이 되며 이들은 바로 대기에서 자체의 연료를 얻으며 타게 된다. 그래서 빨간색은 대단히

활발히 타오르게 된다. 바로 그 울타리가 이 시간과 계절에 장밋빛 빛을 반사해내고 있다. 당신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빨간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주홍참나무를 보고 싶어 한다면, 지금 그것을 보라. 맑은 날 숲속 야산의 언덕 꼭대기 위에 서서, 태양이 한 시간 정도 떠올랐을 때 서쪽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모든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브두셀라처럼 969세 까지 산다하더라도 그것들은 조금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단풍들은 때때로 어스름이 낀 날조차도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단풍만큼이나 똑같이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쪽으로 향해 있으면서, 이들 색깔은 불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그 불빛과 하나가 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전 숲이 꽃정원이 된다. 이 정원에서는 늦은 장미들이 초록색과 번갈아 가면서 불타오르고 있다. 한편 소위 정원사들은 삽과 물뿌리개를 들고서 여기저기로 아마 밭으로 걸어 다니면서 시든 나뭇잎 사이에서 몇 개의 들국화만을 본다.

이 단풍들은 늦게 정원에 피는 꽃들 즉 나의 중국 들국화들이다. 이들은 돌보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숲 전체에 걸쳐서 낙엽들은 나의 식물 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보이는 것만 보아도 당신 뜰에 흙을 깊이 파지 않고서도 충분한 정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전 숲을 정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견해를 약간 향상시키기만 하면 된다. (최소한 단풍나무 꽃을 피운 이래로) 화려함에서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숲의 꽃인 주홍 참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 이 참나무들은 숲에 아주 널리 골고루 흩어져 있는 단풍나무보다 더 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아주 튼튼하고 대체로 더 고귀한 나무이다. 우리의 주요한 11월의 꽃은 우리와 더불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11월 초 풍광에 온기를 나눠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단풍진 밝은 색이 색중에 가장 강렬한 색인 이렇게 깊고 짙은 주홍과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나. 1년 중에 가장 무르익은 과일, 오르리앙의 차가운 섬에서 온 단단하고 광택 있는 빨간 사과의 뺨처럼, 이것은 다음

봄까지 먹기에 좋을 만큼 익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 커다란 참나무 장미 천 개가 수평선까지 멀리 모든 쪽에 퍼져있었다! 나는 네다섯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찬양하고 있다. 지난 15일 동안 내가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은 확실하다. 이 늦은 가을꽃은 봄 혹은 여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해서 해버린다. 이들 색깔은 단지 아주 드물고 고상한 점이다. (가장 소박한 초본과 관목 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어떤 인상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지금 이것은 꽃망울을 터뜨린 곳은 바로 넓혀진 숲 혹은 산허리이다. 이곳을 통해서 또는 이곳을 따라 우리는 매일 여행한다.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 규모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정원사는 아직도 죽은 잡초가운데서 몇 개의 들국화를 돌보고 있으며 말하자면 그에게 더 중요하고 돌볼 필요가 없는 거대한 들국화와 장미 단풍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런 단풍든 풍광은 약간의 빨간 페인트를 칠해진 땅이 받침 위에 얹혀져 있고 황혼녘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것이다. 더 큰 자연이라는 정원을 걸어 다니면서 더 향상되고 넓은 견해를 지니면 안 될 이유가 있겠는가? 넓은 정원의 가치 없는 자그마한 모퉁이에 숨지 말고 정원에 가두어진 몇 개의 초본만 보지 말고 숲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라.

자! 지금 약간 더 모험적으로 산책을 해보라.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 보라. 10월 말경에 우리 마을 아마 당신이 사는 마을 경계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숲을 내려다본다면, 글썄 내가 묘사하려고 애써 노력했던 것을 볼 수도 있다.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찾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아니 훨씬 더 많은 것을 당신은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언덕 꼭대기에 서 있든지 계곡에 서있든지 간에 이 현상은 불변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70평생 동안이라도 이 계절에 모든 숲은 마르고 갈색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이 그것을 보고 안보아서가 아니라 사물을 보려고 마음과 눈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해파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이상으로 눈 그것자체에는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

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그리고 넓게 또는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정밀하게 볼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러한 더 위대한 자연현상들을 보지 못하고 산다. 정원사는 단지 자신이 돌보는 정원만을 본다. 여기 또한 정치 경제에 있어서처럼, 공급은 수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연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자연 풍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아름다움이 있으며 티끌만큼도 우리인식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언덕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보는 실제 대상인 사물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인다. 당신이 밖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로 당신은 주홍참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물의 개념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그 사물을 머릿속에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으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거이 볼 수가 없다. 내가 식물에 대해 생각하며 산책을 할 때, 내 생각이 식물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로 꽂차 있다. 비록 이 식물들이 이 지역에는 토종식물일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허드슨만 지역 가까이에는 없을 것 같지만,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 식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식물을 기대하다가 마침내 나는 그 식물을 분명히 본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명명할 수 있었던 희귀식물 20개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것만을 본다. 초목연구에 몰두하는 식물학자는 가장 장엄한 목장의 참나무를 구별해내지 못한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산책을 하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참나무를 짓밟거나 기껏해야 참나무 그림자만을 본다. 준카시애(Juncaceae)와 그라미니아(Gramineae)처럼 이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조차도 같은 지방에서 다른 식물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의 시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즉 내가 전자를 찾고 있을 때 이들 가운데서 후자를 보질 못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의 지식에 주의를 두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다른 관점의 눈과 마음이 요구되겠는가! 시인과 자연주의자는 얼마나 달리 사물을 보고 있는가!

뉴잉글랜드 도시행정위원을 데려다가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고 그에게 쳐다보도록 권하라. 시력이 최대한 밝아지게 하고

그에게 가장 잘 맞는 안경을 끼고서(아! 그가 원한다면 쌍안경을 사용해서) 그리고 완전한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는 무엇을 볼 것이냐? 그는 볼 것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그는 브로켄⁴¹⁾의 요괴(산꼭대기 따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아래 구름에 크게 비치는 현상)를 볼 것이다. 그는 최소한 몇 개의 공회당을 볼 것이고 어떤 이가 대단한 식림용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를 더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금 율리어스 시저, 임마누엘 스웨덴보그, 피지섬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위에 올려 세우라. 모두 함께 있다고 추측하라. 그리고 그들이 메모한 것을 비교하도록 하라. 이들이 꼭 같은 경치를 즐긴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이 본 것은 로마가 하늘 또는 지옥에서 왔다는 것 또는 최후의 사람이 피지섬에서 왔다는 것만큼 다를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들 중에 어떤 이 만큼이나 이상한 사람이 항상 우리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이다.

도요새와 마멋류를 사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유희를 하기 위해 저격병을 왜 고용하는가. 그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취하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알아야만 한다. 도요새가 저쪽에서 날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제멋대로 하늘로 총을 쏘다면, 아주 적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표적으로 하는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그가 하늘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에 알맞은 때와 자주 나타나는 곳 날개 색깔을 이미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것도 잡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가 그것에 대해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때 가서는 매 발자국마다 잡는데 실패하고 두 배로 쏘아대고 옥수수 밭에서 조차도 총열을 가지고 날개에 쏘게 될 것이다. 사냥꾼은 특별한 사냥 유희를 위해 훈련하고, 손질하고 지칠 줄 모르게 지켜보고 장전하고 준비한다. 그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서 마침내 얻는다. 적절한 오랜 준비 끝에 그의 눈과 손을 훈련시키고 자나깨나 꿈꾼 후에 총, 노와 보트를 타고서 목초지에 사는 암새를 찾아 나선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이 암새를 결코 보아본적도 없고

41) 독일에 있는 산, 월퍼기스 밤(Walpurgis Night)의 현장

꿈꿔 본적도 없다. 사냥꾼은 거센 바람과 대항하며 여러 마일 노저어 간다. 그리고 무릅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곳을 걸어서가고 저녁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밖에서 보낸다. 그러한 결과로서 그는 암새를 잡게 된다. 그는 출발해서 도중에 새들을 잡아 가방 속으로 밀어 넣기만 하면 된다. 진짜 사냥꾼은 자신의 창문에서 거의 어떤 게임에서도 당신을 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별도의 무슨 창문이나 눈을 가지고 있겠는가? 새가 와서는 마침내 그의 총의 총열에 앉는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깃털 달린 새를 결코 보지 못한다. 거위는 전성기에 정확하게 날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운다. 그는 굴뚝을 땀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20개의 사향뒤쥐는 텃이 없어지기 전에 텃 각각의 텃을 거부해서 피한다. 만약에 그가 살면서 사냥을 즐기려는 생각이 증가한다면, 하늘과 땅은 사냥게임을 하기도전에 더 일찍 그를 저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더 광범위하고 아마 더 행복한 사냥터로 가게 될 것이다. 어부는 자신의 싱크 물기등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그는 물고기를 꿈꾸고 꿈속에서 흔들이는 코르크를 본다. 내가 아는 어떤 소년은 허클리베리를 따러 갔다가 야생 구스베리 1쿼트를 따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구스베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녀가 살았던 오지에서 구스베리를 많이 따보았기 때문이었다. 천문학자는 어디서 별을 수집할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별을 분명히 본다. 암탉은 자신이 서있는 곳 바로 밑에서 발로 긁어 음식을 찾는다. 하지만 매는 이런 방법으로 음식을 찾지 않는다.

모든 나뭇잎들 심지어 풀과 이끼들도 바로 떨어지기 전에 더 밝은 색깔을 지닌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밝은 낙엽들은 예외가 아니라 바로 규칙이다. 당신이 각각의 가장 초라한 식물의 변화를 충실하게 관찰하게 될 때, 각각은 조만간 자체의 독특한 가을 색조를 띠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에 당신이 밝은 색조의 완전한 목록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목록은 당신이 사는 지역의 식물 목록만큼이나 길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일차자료

- Thoreau, Henry David. *Reform Papers*. Ed. Wendell Glick. Princeton: Princeton UP, 1973.
- _____. *Early Essays and Miscellanies*. Eds. Joseph J. Moldenhauer, et al. Princeton: Princeton UP, 1975.
- _____. *The Natural History Essays*. Salt Lake City: Gibbs and Smith, 1980.

II. 이차자료

- Abrams, M. H,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Y: W. W. Norton & Company, Inc., 1979.
- Anderson, Charles R. *Thoreau's Vision*. NJ: Prentice Hall, 1973.
- Bode, Carl., ed. *The Portable Thoreau*. NY: Penguin, 1975.
- D'Orlando, Albert. "The Gift of Life." *Lafayette*, October 4, 1992.
- Harding, Walter and Michael Meyer. *The New Thoreau Handbook*. NY: New York UP, 1980.
- Howitt, William. *Land, Labor and Gold, or Two Years in Victoria*. Boston: Ticknor and Fields, 1855.
- Miller, James E. Jr. *Heritage of American Literature*. Harcourt Brace Jovanovich: 1991.
- Niering, William A. and Olmstead, Nancy C. *Field Guide to North American Wildflowers*. New York: Alfred A. Knopf, 1995.
- Reynolds, Katie. "Idealism in Life without Principle." *English 171, Sages and Satirists*, Brown UP: 2003.

Richardson, Robert D., Jr. *Henry Thoreau: A Life of the Min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6.

Snyder, Helena Adell. *Thoreau's Philosophy of Life: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 of Hindoo Philosophy*. New
York: AMS P, 1902.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씌어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정성어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선 박경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통역과 번역을 할 때,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며 올바른 통역과 번역을 하기 위하여 철차탁마하는 심정으로 준비할 것을 누누히 언급하셨습니다. 김재원 교수님께서서는 언어서비스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는 “멋”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의 삶을 영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원보 교수님께서서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현실의 삶에서 직접 보여줌으로서 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츨스키의 언어철학에 대해 열강을 하셨던 양우진 교수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MIT의 츨스키 강의실을 찾아간 기억이 새롭습니다. 변종민 교수님의 *Cat's Cradle*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열의를 재삼 느꼈습니다. 논문 심사를 하면서 소로우 작품 번역의 어려움을 아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양영수 교수님, 밝고 환한 미소로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세심하게 번역물을 살펴주신 김선희 교수님의 정성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하려는 저의 뒤에서 버팀목이 되 주려고 암암리에 도움을 주시는 정진농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문과 인생의 동반자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늘 지켜봐주시는 남편과 힘차게 생활하는 사랑스런 아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